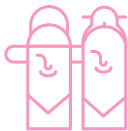




대덕문화원 25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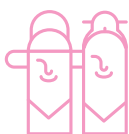
여 기 ,  
문 화 꽃 이
피  다 



대덕문화원



대덕문화원 25년사

여 기 ,  
문 화 꽃 이
피  다 



대덕문화원

목차



01

발간사
축사

제1장

사진으로 보는 대덕문화원 25년

interview

지나온 25년, 가야할 25년

02

제2장

1995...2020 대덕문화원

대덕문화원이 걸어온 길

숫자로 보는 대덕문화원

interview

지나온 25년, 가야할 25년

03

제3장

삶이 문화가 되는 곳 대덕문화원

키워드로 보는 대덕문화원

나에게 대덕문화원이란

interview

지나온 25년, 가야할 25년

04

제4장

대전의 뿌리 대덕

대덕의 역사

대덕의 문화유산

대덕의 무형문화재

05

부록

역대 대덕문화원장

대덕문화원 임원 명단

문화원 정의

지방문화원진흥법

대덕문화원 정관

발간사



대덕구에 문화예술 꽃을 피우다

대전의 뿌리, 천년의 역사를 품은 대덕구에 문화의 향기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설립된 대덕문화원이 25주년을 맞이해 「대덕문화원 25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덕문화원 25년사」는 그 동안 대덕문화원이 성실하게 활동해왔음을 방증하는 결과물이며 지난 25년의 역사와 성과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이번 발간을 통해 저와 직원들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던 옛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초심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대덕문화원의 더 큰 미래를 내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대덕문화원은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대덕구에 설립돼 대덕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며 대덕구라는 토양에 문화예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 속에는 1대~2대, 4대 류해상 원장님과 3대 신현배 원장님, 5대~7대 송성현 원장님을 비롯해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였기에 대덕문화원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쉽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 7,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과 1만여 명에 육박하는 문화원 수강생,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18만 대덕구민은 대덕문화원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덕문화원 25년사」는 ‘문화원’과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의 역사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화원이 이뤄낸 성과와 더불어 문화원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문화예술사업의 성패를 논할 때 대덕문화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퍼져나가는 문화예술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대덕문화원의 방향성이 「대덕문화원

25년사」에 담겨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은 그 동안의 25년을 이 책에 묻어두고 앞으로의 25년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50주년이 되는 해에 지난날을 돌아보며 참 멋진 일들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기를, 작은 문화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너른 꽃밭을 이뤄 우리 모두가 문화 속에서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계속해서 대덕구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도시와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예술의 힘을 믿으며 더욱 발전하는 대덕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원의 25년을 함께해주신 분들,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대덕문화원의 발전과 대덕구의 문화예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정현 대덕구청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덕문화원장
이 종 철

축사



‘문화예술도시 대덕’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길

대덕문화원의 25번째 돌을 맞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대덕문화원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대덕문화원 25년사」 발간을 18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세기는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사회였으나 오늘날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 창의적인 문화가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문화는 인간과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최고의 선물로써, 문화가 융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되어 문화가 갖는 힘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은 그간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 문화 진흥과 우리 조상의 숨결 및 발자취가 녹아든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대덕문화원의 활동은 오늘날 구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결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덕문화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궈 낸 문화 활동 실적과 역사 자료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필수적인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화된 문화시책을 지향하여 대덕구가 대표적인 문화예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덕문화원 25년사」를 발간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발전하는 대덕문화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축사



대덕의 역사와 전통 알리는 ‘대덕문화원’

대덕구의 문화보서(寶書)인 「대덕문화원 25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덕문화원 25년사」가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열정을 쏟아 오신 이종철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이한 대덕문화원은 대덕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은 항상 전통문화의 전승과 확대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왔으며 지역문화와 관련된 출판과 연구하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되는 「대덕문화원 25년사」는 대덕구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덕문화원이 대덕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도시 대덕구를 창출하는데 이바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대덕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 태 성

축사



삶을 변화시키는 지역 문화의 힘

대덕구의 '문화사랑방' 대덕문화원 개관 25주년에 즈음하여 발간되는 「대덕문화원 25년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5년에 설립된 대덕문화원이 어느새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덕문화원의 역사는 그대로 대덕의 산 역사입니다. 생활을 위해 옛 주민들이 오랜 세월 습득하고 공유하며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행동과 생활양식 과정이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이곳 대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소득과 정신적 소득은 '대덕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덕의 문화를 주민 여러분과 대전 시민들이 한눈에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덕문화원이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대덕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대덕문화원은 대덕구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대덕의 문화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만약 대덕문화원이 없었더라면 우리 지역의 문화는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대덕문화원 25년사」의 출간은 뜻 깊은 일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신 이종철 문화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의 25년은 대덕 지역의 문화다양성 추구하고 대덕 주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창조적 문화예술 실현이라는 대덕문화원의 비전을 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덕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며 대덕 문화의 뿌리를 이어나가는 대덕문화원의 미션을 완수해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덕문화원 25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회의원
박 영 순

제1장

사진으로 보는 대덕문화원 25년

대덕과 함께

문화와 예술, 전통과 역사, 사람을 잇는
행복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대덕문화원의 25년을 만나볼까요?

대 덕 문 화 원

1995년

대덕문화원의 출발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살포시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대덕문화가족은
배움의 즐거움, 문화와 함께 하는 행복이 담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예술과 문학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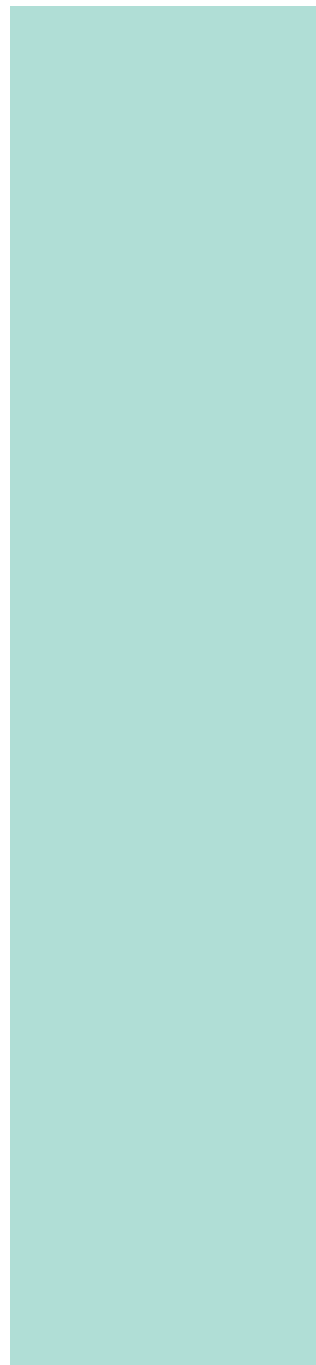




자연 속에서 한 뼘 더 자란
대덕의 아이들









따뜻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기억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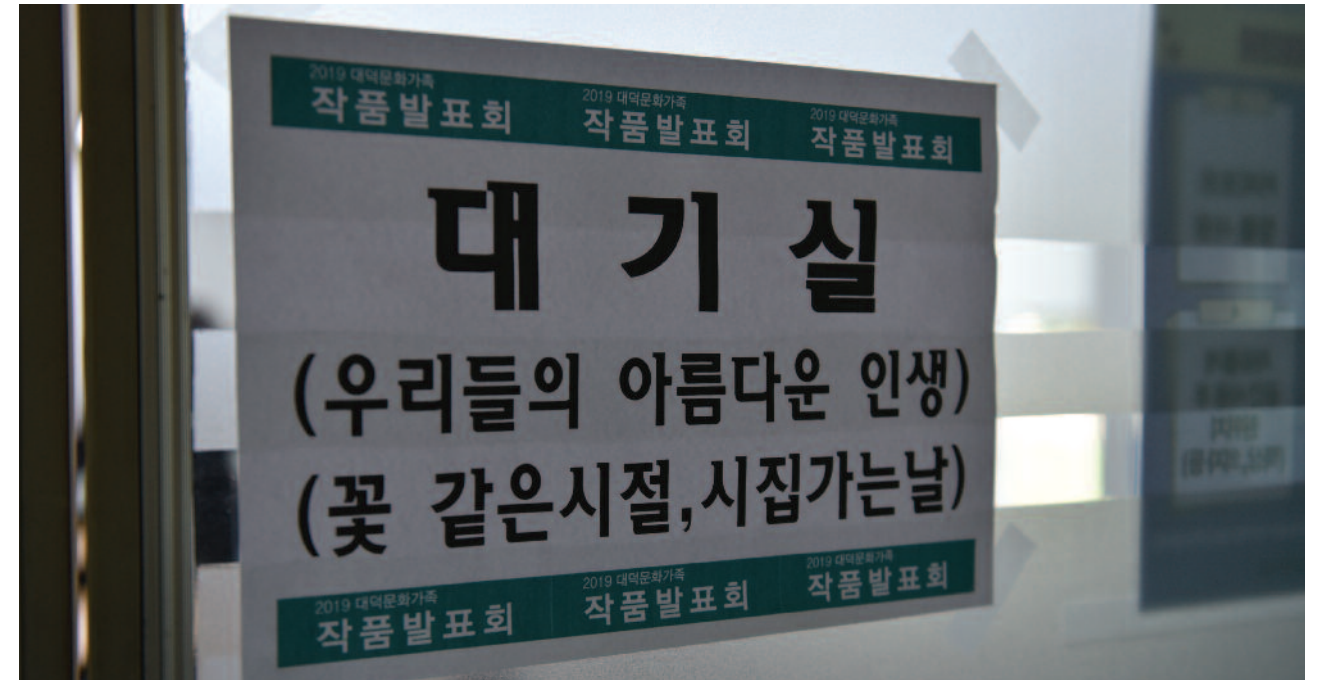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아직,
더 가야함을









꽃 같던 그 시절



누구보다 뜨거웠던 가슴은
여전히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은 그 곁에서 다정히
응원을 건넸을 뿐



새해 첫날
우리는 함께 소원을 빌었고





축제를 통해
역사와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누군가는 꼭 기억해야 할
전통의 멋과 정취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낮설고 놀라운 풍경
재미난 볼거리에 빠져드는 시간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전통을 이어가는 있는 후손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시풍속 마을의 제례의식



대덕문화원은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지키고





옛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마다 봄은 오고
대덕에는 이곳저곳 사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 여기는 대덕입니다



대한민국 일등 문화원

2020
지속문화원의 날 기념식



여기는 대덕문화원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일등 문화원으로 도약한 대덕문화원

송성헌 전 대덕문화원 원장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대덕문화원과 함께 했다. 송성헌 전 대덕문화원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문화원을 이끌었다. 어렵고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직원들의 열정을 존중하고 응원했다. 그 덕분에 대덕문화원은 지역에서 그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한 단계 도약했다.

2011년 대덕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선정하는 문화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의 문화원 중 그 해 종합평가에서 대덕문화원이 1등을 차지한 것이다. 그 덕분에 청와대에 초청되어 문화원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가 했던 사업 중에 노인 일자리사업이었던 〈실버극단 다솜바리〉 운영사례를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다솜바리는 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극단으로 연극, 마당극을 공연했는데요. 사실 그 연세에 대본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대사 하나하나 다 외우시고 연습에도 꼬박꼬박 참여하셨어요. 복지회관, 경로당, 병원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반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송성헌 원장은 대덕문화원을 떠올리면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이 생생하다. 대덕문화원이 스물다섯,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문화원장직을 맡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회덕에 있는 계족산이 올면 비가 온다는 기록

이 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던 조상들은 비가 오지 않아 땅의 물기가 바짝 마를 정도로 날이 가물면 계족산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것이 바로 무제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의 소중한 민속 문화로 한동안 사라졌던 것을 대덕문화원이 복원했다. 계족산 무제는 지금도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행사이자 대덕문화원의 자랑이다.

“전국민속예술축제에 대전시 대표로 나가서 계족산 무제를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수상도 했고요. 제가 직접 공연에 참여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기도 합니다. 대덕구 문화는 계족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대덕문화원이 계족산 무제 같은 민속 문화와 전통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성실히 수행해주길 바랍니다.”

그 동안 대덕문화원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과 행사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송성헌 원장은 지역민의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덕문화원을 만들고자 했다. 당시 문화원 회원은 500여 명. 회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을 설득해 문화원과 함께 했다. 문화탐방, 전통문화교육, 예술공연 등 대덕문화원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송성헌 원장을 주축으로 직원들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발로 뛰고 움직였다. 그 열정과 정성을 가까이서 몸소 체험했기에 회원들은 문화원 일이라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화탐방을 한번 가면 관광버스를 4대 정도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문화재를 둘러보면서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역사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르신들 모시고도 가고 아이들과 가족단위로도 가고 10년 동안 20곳 정도를 다닌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에게 뜻 깊은 추억을 선물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원을 더욱 성장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것은 지역민이다. 그런 대덕의 지역민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 고민에서 출발해 25년을 열심히 달려왔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대덕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문화원처럼 독립청사가 꼭 마련됐으면 하고요. 제가 문화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대덕학을 공부했는데요. 대전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이 대덕구입니다. 지역민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도 대덕문화원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애쓴 그 시절 ‘생활문화’로 지역민에게 다가서다

신현배 전 대덕문화원 원장



신현배 전 대덕문화원장은 서른일곱에 대덕구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역의 일을 돌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어 3대 대덕문화원장으로 재직했다. 대덕문화원이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우 겨우 살림살이를 유지하며 문화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구성원은 문화원장, 사무국장, 직원 이렇게 세 명이 다였고요. 대덕구문예회관 2층 한쪽에 몇 평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애쓰며 일했습니다. 보조금이나 지원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서 문화원을 운영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의욕은 넘쳐도 실행에 옮기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당시 상황은 대덕문화원의 암흑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천천히 뿌리를 내려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덕문화원이 아니던가. 신현배 원장은 두 명의 직원과 똘똘 뭉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문화원을 유지해나갔다. 일단 인맥을 활용해 생활문화 강좌를 꾸려 지역민에게 다가섰다.

“그 때만 해도 대부분이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보니 문화강좌? 그게 뭐예요? 하는 분들이 더 많았죠. 일단은 주변 사람들부터 하나, 둘 설득해서 끌어 모았습니다. 당시 사무국장이 문화계 쪽에

인맥이 상당했는데 그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수강료는 3만원 정도였고 강사들은 재능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대덕문화원을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탄진 면사무소에서도 문화강좌를 운영했다. 사물놀이, 서예, 공예 등을 배우기 위해 제법 많은 수강생들이 일주일이면 서너 번 문화원과 면사무소를 찾았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생활문화로 지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지금의 대덕문화원을 만든 튼튼한 뿌리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신현배 원장은 대덕문화원을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무겁다. 못 다 이룬 꿈처럼 애달픈 감정들이 피어오른다. 그 만큼 늘 관심을 갖고 귀를 열고 지켜봤다. 지금껏 잘해왔지만 앞으로 대덕문화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해보았다.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전통예술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단순히 사물놀이, 전통악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사물놀이의 유래와 역사, 사물놀이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체성까지!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주는 행복, 진정한 효의 의미 같은 것들이 우리 전통문화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죠.”

누군가의 꿈을 마음껏 응원해줄 수 있는 ‘따뜻한 꿈의 공간’이 되길...

박승배 전 대덕문화원 이사



1979년 대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다. 고향을 떠나 40년, 가장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다. 25주년을 맞은 대덕문화원이 문을 연 이후 1대부터 3대까지 이사로 활동했다. 박승배 전 대덕문화원 이사는 스스로를 옛날 사람이라 말하며 지난 기억을 더듬더듬 꺼내본다.

“벌써 여든이 넘었으니 옛날 사람이지요. 대덕문화원 이사로 있을 때 회의나 행사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니까요. 그 때마다 참석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화원 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배 이사가 문화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서예 강좌의 강사로 초대되면서부터다. 요즘은 문화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 강좌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조금은 낯선 풍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문화원의 서예 강좌는 인기가 많았다. 강좌 인원은 총 25명. 접수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강인원이 마감되곤 했다. 아깝게 신청을 놓친 수강생들이 대기 예약을 할 정도였다.

“서예 강좌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계속 강의를 나가게 됐죠.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다가 문화원 이사까지 맡게 됐고요.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서예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도움도 주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서예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

습니다.”

오직 붓과 먹, 종이에 둘러 싸여 서예에만 열정을 쏟았기에 박승배 이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 중 대덕문화원 서예 강좌에서 만난 제자들 중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수상을 하며 남다른 실력을 뽐낸 제자도 있다. 가장 훌륭한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라고 했던가. 관심 반, 호기심 반으로 서예를 시작했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스핀지처럼 흡수해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해나가는 제자들을 보면 그저 흐뭇했던 시절이었다.

“대덕문화원에서 서예를 배우신 분들 중에 취미활동에만 그친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서예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국전이나 시전에서 수상을 하면 그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초대되기도 하는데요. 대덕문화원 제자들 중에 그렇게 심사위원 자격으로 다시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가 더 행복합니다.”

박승배 이사는 여전히 먹을 갈고 붓을 잡고 오직 손끝 하나에 정신을 모아 흰 종이 위에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더 많은 이들이 봐주길 바라는 소박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애정을 갖고 지켜왔던 대덕문화원이 그런 소박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따뜻한 꿈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지역에 젊고 패기 넘치고 열정 가득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더 훨훨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도록 대

덕문화원이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가들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문화원은 예술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지원해주고, 예술가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통해 재능기부를 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될 겁니다.”

제2장

1995...2020 대덕문화원

제2장 1995...2020 대덕문화원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풍습·종교·학문·예술·제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그 범위가 상당하다보니 문화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문화는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몇몇 단어 중 하나다.”
- 영국의 문화연구자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문화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는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용도 혹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예술활동 등을 주재료로 일 년 365일 가장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최고의 만찬을 차려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다 나은 지역의 문화발전을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곳, 바로 문화원이다.



대덕문화원이 걸어온 길

지난 1994년 12월 22일 문화체육부 설립인가를 받은 대덕문화원은 1995년 2월 17일 법동 안산도서관 내 첫 등지를 틀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0년 12월 30일 현재 대덕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는 대덕구문예회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08년부터 대덕구문예회관의 수탁운영을 맡고 있다.

대덕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대덕구민의 문화수준과 대덕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소외 없는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덕구를 만들어나가고자 설립됐다.

운영방향

핵심가치	-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지역문화의 거점역할 수행 - 대덕구민이 함께하는 생활문화 조성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예술 창조
미션	- 대덕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예술공감추구 - 대덕문화의 뿌리를 이어가는 지역문화확산
비전	- 지역문화를 담은 문화다양성 추구 - 대덕구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창조적 문화예술 실현

이에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대덕한학예절체험교실(2007.7)

대덕문화예술체험단(2008.10) ▼



2020

02.21 정기총회
10.23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수상

2014

02.20 2014년도 정기총회

2008

10.24 회덕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
01.22 2008년도 정기총회
01.01 대덕구 문예회관 수탁기관 선정

2019

02.14 제9대 원장 이종철 취임
02.14 2019년도 정기총회
01.01 대덕문예회관 수탁기관 선정

2013

02.28 2013년도 정기총회

2007

02.27 제5대 원장 송성현 취임
02.19 2007년도 정기총회

2018

10.14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계족산무제' 동상 수상
02.22 2018년도 정기총회

2012

02.28 2012년도 정기총회

2006

02.24 2006년도 정기총회

2017

03.15 제8대 원장 이종철 취임
02.24 2017년도 정기총회

2011

10.14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원 대상 수상
02.17 제6대 원장 송성현 연임
02.16 2011년도 정기총회

2005

02.22 제4대 원장 류해상 취임
01.27 2005년도 정기총회

2016

12.21 화관문화훈장 수여(원장 송성현)
02.17 2016년도 정기총회

2010

02.25 2010년도 정기총회

2004

02.19 2004년도 정기총회

2015

02.26 2015년도 정기총회
02.17 제7대 원장 송성현 연임

2009

02.20 2009년도 정기총회

2003

02.17 제3대 원장 신현배 취임
01.17 2003년도 정기총회

2002

02.26 2002년도 정기총회

2001

11.09 전국문화원 관리운영평가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02.16 2001년도 정기총회

2000

12.27 문화원 표석제막식
문화원사 이진

07.10 중국해림시 서법전각협회와
문화결연

02.16 2000년도 정기총회

1999

12.27 대덕시낭송회 창립

01.29 1999년도 정기총회
제2대 원장 류해상 취임

1998

03.19 대덕사진동호인회 창립

03.06 한국문화학교 지정(문화관광부)

02.28 1998년도 정기총회

1997

08.22 대덕미술작가회 창립

01.28 1997년도 정기총회

1996

10.19 제37회 전국민속경연대회

03.27 대덕문화회 창립

02.28 1996년도 정기총회

1995

02.17 문화원 현판제막식
문화원 개원식 및 초대 원장 류해상 취임

01.05 대덕문화원 설립등기(대전지방법원)

1994

12.22 문화체육부 설립인가

09.14 대덕문화원 창립총회 개최

07.11 제2차 발기인총회 개최

07.0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공포

07.01 제1차 발기인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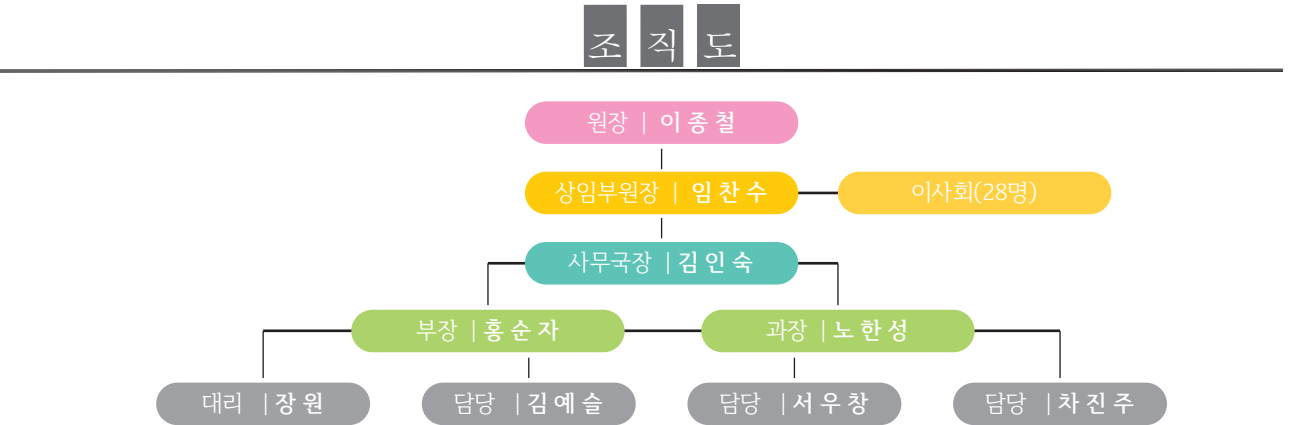
05.02 설립을 위한 발기인 선정

04.13 대덕문화원 설립방침 결정

01.0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공포

대덕문화원은 지난 25년 대덕구만의 특색이 담긴 문화 콘텐츠를 조사·발굴해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한 걸음 다가 설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해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높였다. 이렇듯 대덕문화원이 대덕 문화의 뿌리이자 중심 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원장으로는 류해상 초대원장(초대~2대, 4대), 신현배 원장(3대), 송성현 원장(5대~7대), 이종철 원장(8대~현재)이 문화원 수장 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2020년 현재 대덕문화원 임원은 원장 1명, 상임부원장 1명, 이사회 28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해 총 7명의 구성원이 있다.



숫자로 보는 대덕문화원

우리는 항상 숫자와 함께 생활한다. 달력의 숫자를 보며 일정을 짜고 아침에도 숫자가 적혀 있는 시계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출근길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숫자가 빠지지 않는다. 숫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장 편리한 기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덕문화원의 25년 역사를 숫자로 만나본다.



1996	대덕백일장 대덕이미지사진전 지역문화학교 여성문화강좌 우리고장문화재 순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한밭문화제전국농악경연대회 한밭문화제시민속예술경연대회	초·중·고·일반 1,378 명 참가 대덕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58 점 작품 전시 문인화반(古호산이완종)개강 35 명 수강 대덕구 문화재순례 초·중·일반 161 명 참가 목상동들말두레소리 대통령상 수상 주민 200 명 참여 와동초등학교 농악단 80 명 참여 연화부수제 부수동 주민·무용수 80 명 참여
1997	대덕백일장 대덕미술흐름전 우리고장문화재순례 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여성문화강좌 수강생작품전	초·중·고·일반 2,185 명 참여 대덕미술전공 3년 이상 활동예술가 56 명 작품 전시 동춘당·송용억가옥·쌍청당·원일당 등 273 명 참여 유·초등학생 그림대회 2,048 명 참가 문인화·서예·사진·판화·꽃꽂이 등 96 점 전시
1998	대덕백일장 대덕사진동호인초대전 대덕미술흐름전 우리고장문화재순례 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여성문화강좌 수강생작품전	초·중·고·일반 2,612 명 참여 대덕사진작가 46 점 작품 전시 대덕미술전공 3년 이상 활동예술가 53 명 작품 전시 동춘당·송용억가옥·쌍청당·원일당 등 313 명 참여 유·초등학생 그림대회 2,149 명 참가 문인화·서예·사진·판화·꽃꽂이 등 114 점 전시
1999	대덕백일장 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대덕단오제 대덕미술초대전 여름방학특강어린이한문교실 대덕시낭송대회 문화학교	초·중·고·일반 3,089 명 참가 유·초등학생 그림대회 2,428 명 참여 문화원회원 250 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61 명 작품 전시 기초한자·사자소학·고사성어 등 초등학생 29 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1 명 참여 문인화·서예·사군자 등 170 명 수강

2000

대덕백일장

동춘당문화제

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대덕미술새천년전

한국서예와중국서각의만남

우리고장문화재순례

대덕시낭송대회

한중서예교류전

개관기념전시 지역미술12인전

대덕이미지사진전

문화학교

초·중·고·일반 **2,949**명 참여

휘호대회 **816**명 · 호연재백일장 **75**명 · 한시백일장 **49**명 참여

유·초등학생 그림대회 **1,726**명 참가

대덕미술작가 **54**명 초대 전시

한국서예인 **22**명, 중국서각인 **22**명 초대 전시

대덕구 초·중·학부모 **180**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3**명 참가

한국서예인 **15**명 중국서각인 **13**명 초대 전시

대덕구미술작가 **12**인 초대전 개최 캘린더 제작

대덕의 옛 모습 공모전을 통한 출품작 **107**점 전시

8개 강좌 운영 **122**명 수강



▲ 문화학교 수료식(2000. 12)

2001

개관기념 중견작가초대전

대덕백일장

만화가박기소 초대전

대덕의구전설화발간

대덕미술21세기전

문화학교수강생공모전

대덕시낭송대회

문화학교

대전지역작가 **129**점 작품 전시

초·중·고·일반 **3,542**명 참가

작품 **144**점 전시

대덕구설화 **206**점 수록

대덕미술작가 **56**명 작품 전시

수강생 공모전 **56**명 출품작품 전시

일반부 **23**명, 학생부 **19**명 참여

연간수강인원 **7,561**명



▲ 개관기념 중견작가초대전(2001. 1)

2002

교사품물연수
대덕백일장
안면도꽃박람회관람
대덕미술창작마을 초대전
대덕미술조망전
우리고장선현의 발자취탐방
대덕시낭송대회
문화학교

초·중·고 교사 **42**명 참여
초·중·고·일반 **4,009**명 참여
대덕구민 **86**명 참여
미술창작마을미술교사 **10**명 초청
대덕미술작가 **62**명 작품 전시
1차 **90**명, 2차 **180**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1**명 참가
연간수강인원 **3,400**여명

2003

대덕백일장
문화가족문화재탐방
단오맞이선면전
대덕미술모색전
퀼트&풍선아트전시회
최경선 도예 전시전
우리고장문화재바로알기
기행문공모
대덕시낭송대회
대덕구문화예술유공자시상
대덕오케스트라운영
문화학교

초·중·고·일반 **3,692**명 참여
문화원 회원·수강생 등 **45**명 참여
대덕구미술인 24명 작품 **48**점 전시
대덕구미술인 24명 **48**점 전시
퀼트작품 30여점 풍선작품 **30**여점 전시
공예작품 **20**여점 초대 전시

대덕구내 초·중학생 **454**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37**명 참가
대덕구청장·대덕문화원장 공로패 각 **18**명·**36**명 시상
전공 **41**명 비전공 **26**명 단원 선발
연간수강인원 **3,900**여명

2004

춘강 김영한 회고전
대덕백일장
우리고장문화재바로알기
기행문공모
대덕여성미술작가전
통합복권기금문화프로그램체험
대덕미술확산전
호연재여성문학상공모
대덕문화예술인유공자시상
문화학교

춘강 김영한 선생 관련 작품 **60**여점 전시
초·중·고·일반 **3,350**명 참여

대덕구내 초·중학생 **774**명 참여
대덕구 여성작가 **47**명 작품 전시
문화소외계층 **160**명 참가
대덕미술작가 **66**명 작품 전시
286명 참가 **1,009**점 작품 접수
대덕구청장·대덕문화원장상 각 **15**명 시상
연간수강인원 **4,32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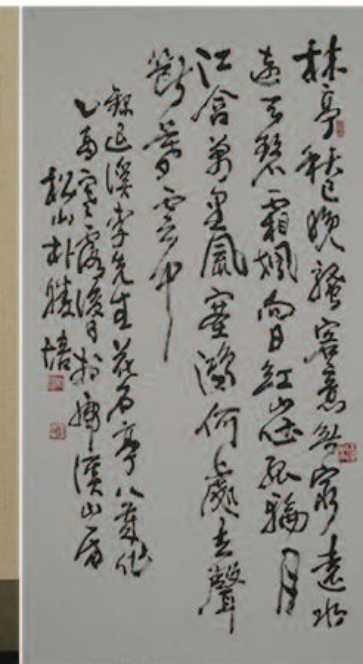
2005

정월대보름맞이전통창작연전시
대덕백일장
단오맞이 부채그림전
통합복권기금문화체험
대덕여성숨씨전
대덕미술소통전
통합복권기금문화체험
호연재여성문학상
문화학교

신호연·전통연 등 **132**점 전시
초·중·고·일반 **4,044**명 참여
대전문화회 회원 30여명 참가 **60**점 작품 전시
문화소외계층 **160**명 참여
대덕구 여성 손·공예작품 **99**점 점시
대덕미술작가 **70**여명 작품 전시
문화소외계층 **173**명 참여
161명 참가 **633**점 작품 접수
연간수강인원 **3,222**명



▲ 박병희 작



▲ 박승배 작

대덕미술소통전(2005. 10)

2006

정월대보름맞이전통그림연전시
대덕백일장
단오맞이 부채그림전
대덕미술공감전
한가위맞이전통목공예전시
역사문화탐방
아름다운 풍경사진전
문화학교

전통연 · 민속연 · 창작연 **125점** 전시
초 · 중 · 고 · 일반 **2,585명** 참여
부채그림 **275점** 전시
대덕미술작가 **78점** 작품 전시
전통제기 · 뿌리공예 **40여점** 전시
문화원 회원 · 수강생 **160명** 참가
대덕사진동호인회 사진 **38점** 전시
11개 강좌 운영 **110명** 수료

2007

정월대보름맞이전통그림연전시
대덕백일장
실버문화학교다솜바리
대덕미술향기전
한학예절체험교실
대덕문화체험단
한국민속예술축제
대덕디카사진 공모전
문화가족역사문화탐방
문화학교

전통연 · 민속연 · 창작연 **120점** 전시
초 · 중 · 고 · 일반 **2,480명** 참여
실버극단 다솜바리 창단 단원 **28명** 선발
대덕미술작가 **83명** 작품 전시
대덕구내 초등학생 **24명** 참여
10회 운영 대덕구민 **450명** 참여
계족산무제 동상 수상 대덕구민 · 풍물단 **83명** 참여
‘찰각’대덕구민 60명 참여, **122점** 출품
문화원회원 **90명** 참여
14개 강좌 운영 **1,200여명** 수강



▲ 대덕한학예절체험교실(2007. 7)

2008

대덕백일장
문화가족문화탐방
대덕미술작가전
대덕한학예절체험교실운영
청소년역사문화대장정
전통놀이안내자양성
대덕문화예술체험단
대덕학정립
문화가족문화탐방
땡땡땡! 실버문화학교운영
대덕의 옛 사진 · 애장품전
강강수월래예술단 창단
문화학교

초 · 중 · 고 · 일반 **2,227명** 참여
문화원 회원 **90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60여명** 작품 전시
대덕구내 초등학생 **42명** 참여
왕릉 · 궁궐 등 탐방, 초 · 중 · 고 · 일반 **35명** 참여
1 · 2기 운영, **40명** 참여
생태 · 농촌체험 등 6회 운영 **240명** 참여
대덕문화아카데미운영 대덕문화해설사 **60명** 양성
문화원 회원 **45명** 참여
장승고을 장동 어르신 **20명** 참여
대덕구민의 애장품 · 사진 **80여점** 전시
대덕구민 **80명** 참여
10개 강좌 운영 **1,800여명** 수강



▲ 청소년역사문화대장정(2008. 8)

2009

노인일자리사업
강강수월래예술단
이주민한국어문화이해교육공모
대덕백일장
문화가족역사문화탐방
대덕문화아카데미운영
뽕뽕! 어르신문화학교
대덕미술초대전
문화가족역사문화탐방
문화학교

실버멘토·다솜바리·장동공방·실버도우미 **97명** 참여
대덕구민 **60명** 참여
대덕구거주이주여성·외국인 노동자 **23명** 참여
초·중·고·일반 **1,369명**
문화원 회원 **90명** 참여
대덕구민여성 **100여명** 참여
연축동 어르신 **20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71명** 작품 전시
문화원 회원 **80명** 참여
12개 강좌 운영 **800여명** 수강



▲ 제14회 대덕백일장(2009. 5)

2010

대덕문화해설사오디션
노인일자리사업
문화가족역사문화탐방
대덕백일장
대덕문화예술체험단
대덕한학문화예술교실
어르신문화학교
대덕시낭송대회
김호연재여성문화축제
문화학교

대덕문화해설사 **40명** 참여
실버멘토·장동공방 등 7개 분야 **122개** 일자리 진행
문화원 회원 **120명** 참여
초·중·고·일반 **526명** 참여
역사문화·농촌·미술체험 등 4회 실시, **160명** 참여
대덕구내 초등학생 **42명** 참여
대덕구내 어르신 오케스트라 '은빛소리' **54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5명** 참여
김호연재여성백일장 **58명** 참여
25개 강좌 운영 **1,500여명** 수강



▲ 대덕문화예술체험단(2010. 10)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장동이야기꽃이피다
어르신문화동아리활성화지원
대덕백일장
문화가족역사문화탐방
대덕미술초대전
대덕한학문화예술교실
대덕새싹문화탐험대
평생학습기관프로그램
대덕시낭송대회
문화예술기관문화학교운영
문화학교

실버멘토·장동공방 등 7개 분야 **134**개 일자리 진행
대덕실버오케스트라 단원 **41**명 참여
장동노인회 **20**명 참여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 외 **3**개 동아리 참여
초·중·고·일반 **238**명 참여
문화원 회원 **300**여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74**명 작품 전시
대덕구내 초등학교생 **31**명 참여
대덕구내 지역아동센터·초등학교생 **28**명 참여
대덕구문화재조사 대덕향토문화연구회 **20**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4**명 참가
청소년인권관련교육 실시 범동중학교 **23**명 참여
14개 강좌 운영 **1,500**여명 수강

2012

문화가족 전국역사문화탐방
대덕백일장·그리기대회
전통민속놀이육성
대덕미술초대전
대덕한학문화예술교실
대덕시낭송대회
문화학교

문화원 회원 **280**명 참여
백일장 **224**명 그리기대회 **86**명 참여
계족산무제 주민 **150**여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80**여명 작품 전시
대덕구내 초등학교생 **36**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6**명 참가
연간수강인원 **1,200**여명



▲ 단오맞이 계족산 무제(2012. 6)



2013

문화가족전국역사문화탐방
대덕백일장
대덕미술초대전
대덕한학문화예술교실
대덕시낭송대회
문화학교

문화원 회원 **160**여명 참여
초·중·고·일반 **532**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78**여명 작품 전시
대덕구내 초등학교생 **31**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6**명 참여
7개 강좌 운영 **1,008**명 수강

2014

대덕백일장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전국기타동아리페스티벌
문화가족전국역사문화탐방
대덕미술초대전
대덕시낭송대회
문화학교

초·중·고·일반 **410**명 참여
법1동 주공 3단지 임대아파트 주민 **20**명 참여
대덕구내 기타동아리 **10**개팀 참여
문화원 회원 **109**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72**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19**명 참여
연간수강인원 **547**명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2014. 10)

2015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대덕백일장
문화가족전국역사문화탐방
대덕한학문화예술교실
대덕미술초대전
전국기타동아리페스티벌
대덕시낭송대회
문화학교

청자마을어르신 **30**명 참여
초·중·고·일반 **310**명 참여
문화원 회원 **260**여명 참여
대덕구내 초등학생 **30**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69**명 작품 전시
전국기타동아리 **11**개팀 참여
학생부·일반부 **22**명 참여
연간수강인원 **1,005**명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2015. 4)

2016

생활속예술활동지원
대덕문화회
문화가족전국역사문화탐방
계족산맨발축제
대덕백일장
대덕문화예술교실
대덕시낭송대회
실버문화페스티벌
대덕미술초대전
문화학교

7개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
대덕문학 **20**집 발간
문화원 회원 **160**여명 참여
5개 문화원 문화프로그램 참여
초·중·고·일반 **391**명 참여
생태캠프 진행 초등학생 **30**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5**명 참여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 단원 **29**명 참여
대덕미술작가 **70**여명 작품 전시
연간수강인원 **1,160**여명



▲ 문화가족 전국역사문화탐방(2016. 5)

2017

청소년문화창조프로그램
문화가족전국역사문화탐방
대덕백일장
대덕문화예술교실
지역문화유산기행
대덕시낭송대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20**회 운영
문화원 회원 **140**여명 참여
초·중·고·일반 **210**명 참여
대덕구내 초등학생 **30**명 참여
대덕문화로스토리로·문화재탐방 **120**여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67**명 참여
다솜바리·이현동·장동공방 어르신 **29**명 참여
마당극 감성캠프 '신화창조' 운영 **90**명 참여
연간수강인원 **1,066**명



▲ 꿈다락토요문화학교(2017. 12)

2018

지역문화재스토리텔링
대덕스토리로문화로
문화가족전국역사문화탐방
대덕백일장
대덕문화예술교실
대덕시낭송대회
대덕문화회
문화학교

대덕구자생단체·대덕구민 **300**여명 참여
문화원 회원 **200**여명 참여
초·중·고·일반 **200**여명 참여
대덕구내 초등학생 **31**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45**명 참여
제4회 대덕문학상 시상 대덕문학 제**22**집 발간
10개 강좌 운영 **1,077**명 수강



▲ 대덕스토리로문화로(2018. 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대덕문화가족전국역사문화탐방
우리동네해피클래식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지원

대덕스토리문화로
청바지페스티벌
방방곡곡 문화공감
대덕백일장
신나는예술여행 대전문화의향기
책을펴자독서문화캠페인
공연산책 소리소문
대덕문화예술교실
대덕여성구술사아카데미
대덕시낭송대회
대덕문학회
문화학교

공연 **12**회 연극교실 **20**회 실시
문화원 회원 **220**여명 참여
대전시립교향악 공연 **4**회 실시
청자마을 어르신 사진 봉사단 운영
교육 **14**회 대외활동 **17**회 진행
6회 진행 대덕구민 **240**여명 참여
대전 **5**개 문화원 참여
5회 공연 **1,000**여명 관람
초·중·고·일반 **337**명 참여
3회 공연·전시·체험 진행
향토서점 **4**곳 지정 도서 반값할인 캠페인 진행
문화가 있는 날 **6**회 공연 실시
대덕구내 초등학생 **28**명 참여
대덕구내 여성 **10**명 참여
학생부·일반부 **26**명 참가
제5회 문학상 시상 대덕문학 제**23**집 발간
28개 강좌 운영 **2,726**명 수강



▲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2019. 5)

문화의 핵심은 ‘변화’ 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좋은 문화원이다

강성복 전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1995년 초대 사무국장으로 대덕문화원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강성복 전 대덕문화원 사무국장은 서른 초반의 젊은 인재였다. 더구나 문화원에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민속학을 공부해왔기에 지역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낯설지 않았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민속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무국장 최종면접을 볼 때 문화원의 역할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신껏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강성복 사무국장이 대덕문화원에 머물렀던 시간은 몇 개월에 불과하다. 처음 마음에 품고 출발했던 당찬 의욕과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대덕문화원은 개원 당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건물 1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사무실은 있었지만 그 외에 모든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출근을 했는데 정말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청소도구 하나 제대로 구비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대덕문화원 총회를 해야 하는데 총회 구성원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알 수가 없었고요. 막무가내로 신탄진 벚꽃제까지 혼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참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해마다 4월이면 신탄진에서는 벚꽃축제가 열렸다. 대덕구가 주축이 돼 추진되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였다. 그런 축제를 대덕문화원이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축제의 예산을 짜고 사업 계획

서를 작성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일들이 강성복 사무국장의 몫이 된 것이다.

“사무국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저는 저 혼자였으니까 그런 큰 지역축제를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이 됐죠. 그래도 일단 주어진 일이니까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구요. 결과적으로 대학동아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다채롭게 구성해서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민속학을 공부했으며 지금도 민속학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강성복 사무국장은 대덕문화원의 자랑 중 하나인 ‘들말두레소리’ 발굴에도 참여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지역대회에서 들말두레소리가 대전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했는데, 사무국장으로서 끝까지 그 과정을 함께 하진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때나 지금이나 대덕문화원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 같아요.”

문화원은 놀이터다. 문화원은 배움터다. 문화원은 시를 쓰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쉼터가 될 수도 있다. 문화란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핵심은 늘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이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문화원이 전통, 역사, 민속신앙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쏟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어떤 특정 세대나 계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모든 계층을 위한 문화원이 우리가 바라는 좋은 문화원이 아닐까요?”

흙 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 문화 꽃을 피워내다

유경삼 전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대덕문화원과 함께 했다. 그 만큼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도, 25주년을 맞아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듯하다.

“저는 원래 계속 문화예술 쪽에서 일했어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술문화단체, 연합회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러다가 연이 닿아서 대덕문화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 대덕문화원은 정말 맨바닥이었어요. 아니 풀도 안 난 그냥 흙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시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에 조금씩 천천히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유경삼 사무국장. 전임 사무국장이 만들어놓은 「대덕의 재발견」이라는 총서에 영감을 얻어 해마다 대덕의 역사, 인물, 전통마을, 전통건축, 문화재 등을 다룬 총서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무국장 재직기간 동안 10권의 총서를 완성했다. 현재 대덕문화원이 발간해 보관하고 있는 총서는 제1권인 「대덕의 재발견」을 포함해 총 11권이다. “총서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한 권에 담기보다는 전통건축이면 전통건축, 매장문화재면 매장문화재 특정한 분야를 자세히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뿌리부터 현재의 모습까지를 담은 거죠. 그런 자료들이 곧 대덕구의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축제나 행사는 추억으로만 남지만 총서는 기록으로, 책으로 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삼 사무국장의 열정과 노력이 힘을 더해 대덕문화원은 개원 이후 차츰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문화원에서 처음 만들어 추진한 사업들이 제법 있다. 올해 24회를 맞는 ‘대덕백일장’과 ‘동춘당문화제’는 대덕문화원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지인들에게 부탁도 하고 때를 쓰며 준비했던 ‘대덕미술작가전’은 대전의 5개 자치구 문화원 중 대덕문화원이 가장 먼저 출발한 미술행사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 여러 가지 있죠. 대덕문화원 홈페이지도 구축했고요. 문화재 순례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때는 ‘우리 고장 문화재 순례’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대덕구부터 다녔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문화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관심도 덜 하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과 함께 우리 고장부터 다 돌아보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했죠.”

일복이 많다고 해야 할까. 의욕이 넘친다고 해야 할까. 모든 일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진 유경삼 사무국장은 대덕문화원 일을 하면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들과 자주 소통했다.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전시에는 매번 지인들의 작품이 동원됐다. 수강생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솜씨가 좋은 수강생들의 작품은 연말이면 작품발표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됐다.

“대보름제 같은 행사를 할 때는 연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인한테 부탁해서 연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요. 한 번은 문화원에서 도자기 강좌를 한 적이 있는데, 수강생들의 솜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벌된 도자기를

가지고 경기도 이천까지 가서 구워왔습니다. 전시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 보람되고 재미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도 적고 여유로운 시골 분위기가 어울리는 지역이 대덕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문화원은 그 어떤 문화원보다 활발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해 성과에 있어서도 매번 좋은 성적표를 내놓는다. 그 이유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적극성’이다. 아마도 유경삼 전 사무국장이 가장 흐뭇해할 부분이 아닐까.

“대덕문화원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가까이서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대덕문화원 기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에도 쓰이고 지역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사업에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된다면 그야말로 대덕 전 지역에 문화 꽃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기억과 기록’ 마을 아카이빙 사업은 문화원이 해야 할 일

임창웅 전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인 고향은 대덕이다. 회덕 초등학교와 회덕 중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대덕구민으로 살고 있다. 대덕 토박이인 임창웅 전 대덕문화원 사무국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원의 많은 사업을 기획했다. 대덕문화원이 비로소 지역문화를 이끄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석사과정을 마쳤어요. 서예가로서 개인전도 몇 번 열었고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글씨를 쓰는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첫 공개채용으로 대덕문화원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문화원이 지역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막 갖춰나가던 때였죠. 저는 사실 그 전에는 문화원이 그냥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지역의 문화를 아우르는 꼭 필요한 기관이더라고요.”

임창웅 사무국장이 재직하던 시절, 대덕문화원에는 큰 경사가 있었다. 2011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는 문화원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당시 문화원연합회는 전국 228개 문화원의 일 년 성과를 평가해 상위 30%에 드는 문화원을 선정했다. 그 다음 인터뷰를 통해 1, 2, 3위를 뽑았다. 대덕문화원은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라는 어르신일자리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1등을 차지했다.

“그 때부터 대덕문화원이 문화원만의 색깔을 갖기 시작했죠. 전국 문화원들이 대덕문화원은 실버문화

의 기지라고 말할 정도로 실버문화학교 운영이 아주 잘 진행됐어요. 어르신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요. ‘다솜바리’라는 실버극단도 창단했는데,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공연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극단 활동이 삶의 활력이었죠.” 임창웅 사무국장에게는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아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직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이신데,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들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르신께서 생전에 집에서 그렇게 짜증과 신경질을 많이 내셨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한테 화내는 일이 거의 없으셨다고 해요. 그 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대덕문화원이 타 지역 문화원과 다른 점은 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기획한다는 점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회덕동 굴다리 축제’ 같은 재미있는 마을축제가 생겨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 동네를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이런 곳에서 축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굴다리가 8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굴다리 축제를 해보자 제안을 했죠. 처음에는 ‘굴다리’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설득해서 결국 추진했는데, 축제기간 동안 한 3천 명 정도가 다녀간 것 같아요.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축제에 들어간 예산만큼 수

익이 남았더라고요.”

대덕문화원은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밑바탕에는 지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노력도 결국 영원할 순 없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임창웅 사무국장은 기억과 기록, 보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대덕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카이빙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있을 때만해도 문화원 인근에 있었던 마을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 마을의 역사와 그 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곧 대덕의 문화인데, 그냥 사라져버리게 놔둘 순 없잖아요. 지난 기록이 언젠가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발걸음 ‘인문교육’이 필요하다

이모일 대덕문화원 부원장



한 때 ‘문화’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먹고 살기 바빠 정신없이 청춘을 흘려보냈다. 그저 일만 하며 살았던 기억 밖에 없다. 이모일 대덕문화원 부원장의 이야기다.

“평생 일만 하다가 나이가 들고 나서 즐길 거리, 취미생활이 뭐가 있을까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리 국악, 민요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아리랑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일 부원장이 아리랑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온 세월이 무려 15년이다. 그 동안 발굴해낸 아리랑만 3000곡이 넘는다. 이런 우리 민요에 대한 무한한 애정 덕분에 10년 넘게 대덕문화원과의 연을 이어오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죠. 특히 대덕문화원이 개원할 당시에는 대덕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전체가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었고요.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문화원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5년 동안 잘 헤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날 대덕문화원은 제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성원들의 열정도 대단함을 인정한다.

“문화원이 발전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대덕문화원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문화 밖에 없잖아요. 대덕문화원이 대덕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덕문화원과 함께 해왔고, 누구보다 문화원이 하는 일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이제 이

모일 부원장이 대덕문화원에 바라는 것은 하나다.

“지역민의 한층 높아진 문화수준에 맞는 또 다른 문화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만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의 전환을 위한 인문교육을 문화원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변화를 주도하는 문화원이 되길

임기환 대덕문화원 부원장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대덕문화원 이사를 거쳐 현재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기환 대덕문화원 부원장은 지역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20년이 넘는 세월을 대덕과 함께 했다.

“대덕구 오정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22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대덕문화원이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지만 꾸준히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 무형의 가치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임기환 부원장은 대덕문화원이 지역민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대덕구에도 다문화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유명 관광지만 소개해줄 뿐 그 나라의 진짜 문화, 소소한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대덕문화원에서 다문화가정을 통해 그 나라의 음식, 전통, 예술, 풍습 같은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

게 다른 색깔의 옷을 갈아입고 있지만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과 속이 조화롭지 못하니 탈이 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옛것, 전통만 고집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꾸 옛것만 되돌아보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잖아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지난 세대가 아닌 앞으로의 세대, 청소년들인데 그들을 위한 문화교육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덕문화원이 되길 바랍니다.”

‘대덕문화원 25년사’ 발간은 지역문화의 뿌리,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일

임찬수 대덕문화원 부원장



1995년 그리고 2020년. 25년이라는 시간동안 대덕문화원은 대덕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그 오랜 세월을 문화원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대덕문화원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임찬수 대덕문화원 부원장에게 무척이나 뜻 깊은 일이다.

“우리는 일상이 문화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덕문화원 25년사」 발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은 기억일 뿐이고 기록은 역사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 동안 지역민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해온 대덕문화원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문화의 뿌리,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의 문화원은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 발전시키며 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덕문화원은 언제나 열려있는 대덕구민의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문화원 운영에 있어 지역민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맞잡은 그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앉았던 대덕문화원이다.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덕문화원을 가까이서 지켜봐왔는데요. 막상 문화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원이 가진 역량에 비해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일단 독립청사가 없다보니 다른 타구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지역민을 위한 쉼터나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 동안 대덕문화원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확대,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대덕문화원에 대한 고민으로 채우고 있는 임찬수 부원장은 문화원의 기능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생활문화 중심의 사업을 더욱 확장해 다양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발굴과 개발에 더욱 힘을 쓸 때, 대덕문화원의 새로운 25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대덕문화원이 미래 25년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관계망의 강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과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덕문화원만의 체계적인 홍보망이 구축돼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손안의 정보를 누군가와 빠르게 공유하고 검색을 통해 문화를 읽고 찾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걸 맞는 소통창구를 하루 빨리 마련해 지금까지 그러했듯 한발 앞서나가는 대덕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장

삶이 문화가 되는 곳 대덕문화원

제3장 삶이 문화가 되는 곳 대덕문화원

키워드로 보는 대덕문화원

생활문화로 지역민과 소통하다

대덕문화원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감성을 키우고 지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민과 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문화원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998년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된 대덕문화원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강좌를 마련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문화학교를 운영했으며, 수강생들의 정성과 노력이 배인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는 문화학교 작품 발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어린이 한문교실, 선진생활문화강연회,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보다 많은 지역민이 오래도록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덕사진동호인회, 대덕시낭송회, 대덕오케스트라 등 대덕구 예술동호회의 구성과 활동을 도왔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각종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해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 2018 대덕문화가족 작품발표회



▲ 문화학교

지역문화 꽃을 피우다

지역문화의 발전은 대덕문화원의 발전이기도 하다. 지역의 전문예술인은 일반인에게 높게만 느껴지는 문화예술의 벽을 낮춰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지역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첫 걸음은 지역의 예술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대덕문화원은 대덕미술초대전, 중견작가초대전, 대덕미술창작마을초대전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 중견작가, 아마추어 미술인들의 전시회를 마련해 지역민이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대덕문화원 개원 첫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덕백일장을 비롯해 대덕시낭송대회, 대덕문학집 발간, 우리고장기행 공모 등을 통해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널리 알렸으며 지역 문학 활성화에 기여했다.

미술과 문학에 이어 공연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대덕문화원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덕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해 지역민에게 연극, 국악공연, 클래식공연,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제공했다.



▲ 2010 대덕미술초대전

전통문화 계승·보존에 앞장서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계승하고 보존해나가는 작업은 대덕의 문화 뿌리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일이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며 그 결과물은 지역민의 자부심이자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대덕문화원은 「대덕의 전통건축」, 「대덕의 전통마을」, 「대덕의 매장문화재」, 「호연재 김씨의 시와 삶」 등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정리한 총서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옛 문헌에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 자료를 수집·연구·정리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흐른다. 이에 대덕문화원은 대덕구의 역사·문화·인물·전통·풍습 등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대덕문화원은 회덕향교 석전대제, 산신제, 보름제, 대덕단오제,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계족산 무제 등 민속문화 보존을 위한 마을행사와 전통 민속놀이를 보존·계승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덕학 정립, 대덕문화아카데미, 지역문화유산기행 등을 통해 지역민의 애향심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계족산 무제

다른 빛깔의 지역축제를 만들다

일 년 열두 달이면 수백 개에 이르는 지역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지역축제는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를 말한다. 이름도 다르고 테마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은 서로 닮아있다. 한 마디로 특색 없고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대덕문화원은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항상 명확한 주제와 기획을 갖고 출발한다. 대덕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 동춘당문화제, 신탄진 봄꽃축제 등이 해당된다. 세부 프로그램 역시 단순 설명이나 체험 위주가 아닌 주제를 바라보는 색다른 해석과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덕분에 대덕구 축제는 해마다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대덕문화원은 가족음악회, 대청호뮤직페스티벌, 관현악축제, 전국기타동아리페스티벌 등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여유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힐링축제도 마련하고 있다.



▲ 제16회 대덕백일장



▲ 2019 동춘당문화제

대한민국 1등 문화원이 되다

대덕문화원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했다. 기존의 틀과 영역만을 고집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의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그런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좋은 결실이 되어 돌아왔다.

2001년 대덕문화원은 전국문화원관리운영평가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1년 대한민국 문화원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문화원 가운데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영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개원 25주년을 맞이한 2020년 대덕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문화원상 심사에서 또 한 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19 문화적도시재생사업 in 88 street'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2관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 밖에도 대덕문화원은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계족산 무제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대전대표로 출전해 각각 대통령상과 동상을 수상하는 등 대덕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1996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대전대표 출전
대통령상 수상

2001 전국문화원관리운영평가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2007 한국민속예술축제 '계족산무제' 대전대표 출전
동상 수상

2011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2016 송성현 원장 화관문화훈장 수상

2018 한국민속예술축제 '계족산무제' 대전대표 출전
동상 수상

2020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국무총리상)수상

2020 대한민국 문화원상 우수프로그램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2020 대한민국 문화원상 ▶

지역민의 삶 **변화**를 주도하다

대덕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다. 대전의 뿌리지만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조금은 천천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비율도 청년층보다 장년층과 노년층 비율이 높다. 특히 65세 노인인구비율이 15%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대덕문화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추진해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실버멘토, 실버극단 다솜바리, 장동공방과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물론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행복을 찾아주고 있다.

또한 호연재 여성문학상 공모, 지역여성문화 콘텐츠 발굴사업, 대덕여성사 책자 발간, 대덕여성구술사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대덕의 여성문화브랜드를 확산시켰으며 회덕작은도서관 개관, 대덕문예회관 운영, 문화적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도 추진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대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 실버극단 다솜바리

나에게 대덕문화원이란

‘사람과 문화’ 25인의 이야기



고선애 / 대덕문화원 회원

대덕문화원은 바다와 같이 넓은 포용력을 지닌 공간입니다. 대덕문화원 안에는 어르신부터 중장년, 청소년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창의인성교육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제2의 인생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배움터**로 계속 남아주길 희망합니다.

나에게 대덕문화원이란

‘사람과 문화’ 25인의 이야기



구경희 / 대덕문화원 회원

대덕문화원에서 서예 강의를 시작한 지 23년이나 흘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30대의 새댁이었던 제자가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걸쳐 수요일 서예반 ‘정목회’를 이끌어 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대덕문화원은 **제 삶의 일부** 같습니다. 앞으로도 心正則筆正 筆正則事正의 마음으로 대덕문화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원의 구성원들이 지역주민 모두가 고루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안쓰럽고 고생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문화원을 꾸려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할 만큼 **고마운 대덕문화원**입니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유교적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고 보존하는 대덕문화원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권용기 / 대덕문화원 이사



김정곤 / 대덕문화원 회원

대덕문화원은 일제강점기에 명맥이 끊겨버린 계족산 무제(기우제)를 재현하고, 중국 헤이룽 장성에서 서예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발굴과 보존,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또 세계로 뻗어 나가려는 노력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쌓은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그냥 좋은 대덕 문화원**이라는 지금의 목표를 잘 실현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수연 / 대덕구의회 의원

대덕문화원이 25돌을 맞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문화원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청의 중심이 회덕이고, 회덕의 중심이 대덕입니다. 전통문화라는 큰 자산을 가진 대덕구의 문화원인 만큼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나에게 대덕문화원이란

‘사람과 문화’ 25인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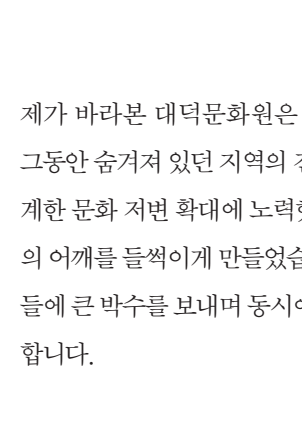


김찬술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대덕문화원은 **문화의 꽃이 자라나는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원의 여러 활동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가슴에 문화의 꽃을 피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덕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이 대덕구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매개로 희망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대덕문화원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대덕구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 문화와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의 시대인 만큼 대덕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큼니다. 더욱 내실화하여 **문화 복지도시 건설**에 힘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김홍태 / 대덕구의회 의원



류기형 /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제가 바라본 대덕문화원은 전국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문화원**입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세상에 꺼내는 역할을 했고, 지역작가와 연계한 문화 저변 확대에 노력했으며, 동네마다 풍물패가 생겨나도록 해 대덕구민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덕문화원이 이룬 가치 있는 성과들에 큰 박수를 보내며 동시에 늘 지금처럼 지역 문화예술계의 버팀목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성원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대덕문화원은 **문화로 소통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대덕문화원에서 추진한 ‘청자마을 골목축제’ 같은 경우, 문화 안에서 남녀노소 모두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소통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잊지 않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대덕문화원이란

‘사람과 문화’ 25인의 이야기



박석신 / 문화공간 꼬씨꼬씨 대표

저는 대덕문화원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덕문화원이 과거와 현재의 가치들을 융합해 미래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원은 미래의 보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덕구의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외부에 알리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대덕문화원의 역량이 크게 발휘될 것이라 믿습니다.

백순남 / 대덕문화원 이사

사람에 비유하면 25살이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대덕문화원의 25주년을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와 함께 돌아보니 지난 시간 대덕문화원과 함께 즐겁게 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함께 연극을 하며 전국 순회공연을 했던 일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문화원을 통해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서기욱 / 대덕문화원 회원

대덕문화원과 함께 했던 시간을 돌아보니 새삼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들말 두레놀이’로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수상 소식에 문화원 식구들이 톨게이트까지 버선발로 달려 나가 열싸안고 기뻐했던 적도 있습니다.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제게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열정과 삶의 기쁨을 준 대덕문화원 참으로 고맙습니다.



서성관 / 대덕문화원 회원

안산도서관에서 서예 교실을 열 때부터 함께 해온 대덕문화원이 25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여 년 이곳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저 또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敎學相長(교학상장:배우면서 성장한다)의 장이 된 곳이 대덕문화원입니다. 더욱 내실 있고 깊이 있는 문화의 요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대덕문화원이란

‘사람과 문화’ 25인의 이야기



손희역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문화 사랑방 대덕문화원의 25돌을 축하드립니다. 대덕문화원은 지역민의 쉼터이자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는 샘터로 많은 역할을 해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대덕구민의 문화 사랑방으로 주춧돌을 쌓은 만큼 앞으로의 25년은 지역 문화의 허브로 발전해나가기길 기원하겠습니다.

신정숙 / 하늘강 아뜰리에 대표
대덕문화원은 문화계에 몸담고 있는 저에게 길라잡이와 같은 곳입니다. 대덕문화원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공공환경미술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은 저에게 많은 힘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 좋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되는 대덕문화원! 앞으로도 지역 작가들의 희망으로 남아 주길 바랍니다.



윤병문 / 대덕문화원 이사

대전의 문화적 뿌리는 대덕구에 있습니다. 그 문화적 뿌리라는 것은 결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귀중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대덕문화원의 발자취가 곧 대전시의 문화를 대표하며, 대덕문화원은 대전의 자부심이란 생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심원생 / 들말두레소리 보존회 회장

대덕문화원은 들말두레소리 보존회의 가족이자 동지입니다. 대덕문화원에서 들말두레 소리를 발굴해 준 덕분에 199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날의 영광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덕문화원과 함께 상생하며 우리의 옛것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대덕문화원이란

‘사람과 문화’ 25인의 이야기



안도경 / 대덕문화원 회원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를 꼭 닮은 대덕문화원이기에 벌써 25주년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대덕구에 주민으로 이뤄진 많은 풍물패가 생겨나고, 이들이 계족산 무제나 동춘당 문화제와 같은 넓은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대덕문화원 덕분입니다.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신명나는 대덕구를 만들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오진화 / 대덕문화원 수강생

처음 친구 손에 이끌려서 대덕문화원을 찾아간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당연히 문화원 가는 날로 여겨질 정도로 저에게 문화원은 하나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문화탐방과 서예를 통해 좋은 선생님, 친구를 만나 행복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25주년을 함께 해왔듯 50주년까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경수 / 대덕구의회 의원

25살 청년의 마음을 닮은 대덕문화원은 도전정신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배달강좌처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도전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덕의 뿌리를 찾는 고증과 연구, 더불어 대덕구민들에게 문화를 되돌려주기 위한 많은 노력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은 대덕문화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삼남 / 대덕구의회 의원

문화 분야는 깊이에 한계가 없고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앞에서 박수를 받기보단 뒤에서 묵묵히 일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 애써 오신 대덕문화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덕구민들이 대덕문화원에서 삶의 활력을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대덕문화원이란

‘사람과 문화’ 25인의 이야기



이춘아 / 前 대전문화재단 대표

풍부한 역사적 콘텐츠를 가졌지만 한편으로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소외되었던 곳이 대덕구입니다. 대덕문화원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문화적인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덕문화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덕구민들이 정체성을 찾고, 앞으로 스스로 삶을 기획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정기봉 / 대덕문화원 회원

대덕구의 지역주민들에게 동양화의 뿌리를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듣고 20년 넘게 많은 분들과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동양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취미로 시작했다가 점점 실력이 늘어 화실을 내고, 중앙 미술계에 진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복 / 타악그룹 굿 대표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덕문화원. 때로 한계에 부딪칠 때에도 적당히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문화원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려는 모습에 감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발판 삼아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더라도 모두 극복해나가며 대덕문화원의 더 큰 목표들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전해동 / 대덕구 문화체육관광과장

대덕문화원의 구성원 여러분들이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으로 지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늘 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나 사업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역주민들과 문화를 나누기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만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덕문화원은 저와 **함께 높은 산을 오르는 친구**라 생각하며 서로 밀고 끌어주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대덕은 ‘대전의 뿌리’ 대덕문화원은 ‘문화의 뿌리를 지키는 곳’

강창선 대덕문화원 이사



‘대전의 뿌리 대덕’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강창선 대덕문화원 이사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다. 그 중 절반 이상을 근무했던 부서가 문화공보과다. 몸담고 있는 기관이 바뀌어도 비슷한 업무가 주어졌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 예술에 대한 관심이 그런 인연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생활계에서도 일했고 세금 관련된 업무도 했었죠. 그런데 33년 공직생활 중에 15년을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처가 바뀌어도 근무부서는 문화공보실 불박이나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쪽 분야가 마치 제 특기라도 되는 것처럼 문화공보실하고만 인연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 전통, 역사, 문화재 관련 일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1995년 대덕문화원 개원 당시 강창선 이사는 문화공보실 근무 경험과 주변 인맥을 바탕으로 초기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문화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현재 대덕문화원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너무 늦게 문을 연 것이 아쉽다.

“회덕은 대전의 뿌리이고, 대덕은 뿌리의 고장입니다. 그 만큼 오랜 전통과 풍습, 역사가 존재하는 곳이지요. 대덕문화원이 조금 더 일찍 개원해서 그런 지역의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대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을 겁니다.”

강창선 이사는 1985년 출발한 ‘옛생돌’이라는 문화단체에서 활동했다. ‘옛생돌’은 옛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그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옛생돌’은 단재 신채호 생가터를 발굴하기도 했다.

향토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활동했습니다. 대전의 산성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찾아서 기록하기도 하고, 문화재에 대한 공부도 했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익을 바라고 그런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냥 옛것의 소중함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가장 컸는데요. 지금은 대덕문화원이 체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를 꼽으라면 케이팝(K-POP, 한국의 대중음악)을 떠올릴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더듬더듬 한글이나 경복궁을 생각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뿌리가 있다. 오늘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대중가요도 결국 그 뿌리에는 우리 민요, 옛 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튼튼합니다. 뿌리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자 미래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시풍속, 전통문화 같은 옛 것을 계속 발굴하고 보존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덕문화원이 바로 그 모든 문화의 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새롭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덕문화원

박은숙 대덕문화원 이사



박은숙 대덕문화원 이사는 대덕구에서 25년을 살았다. 대덕문화원은 문화원 강사와 회원으로 시작해 감사를 거쳐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세월 또한 15년이 넘는다. 어떤 만남이든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다는 것은 보통 인연은 아니다.

“문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강의도 하고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제안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문화의 중심축인 대덕문화원과 연이 닿을 수밖에 없었고요. 서로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때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했던 박은숙 이사는 문화해설사를 시작하면서 지역의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문화정책을 공부하고 뒤집어보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사실 지역문화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문화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문화정책들은 대부분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제는 ‘결합’을 통한 ‘활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덕문화원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어요.”

박은숙 이사에게 대덕문화원은 젊고 새로웠다. 굳이 다른 지역 문화원과 비교하지 않아도 대덕문화원만의 강점은 어디에서도 드러났다. 기존 사업들을 원활하게 끌고 가는 능력도 탁월했지만 그 보다 대덕

문화원의 역량이 빛을 발했던 부분은 새로운 시도다. 지역의 전통문화나 문화제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마련이다. 대덕문화원은 그런 참자는 이미지를 깨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에 많은 힘을 쏟았다.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 같은 경우가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문화제 ‘호연재 고택’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연극, 마당극,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호연재’의 역사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정말 의미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축제가 해를 더해갈수록 기대가 되더라고요.”

대덕문화원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문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문화재단과 같은 단체들이 하나, 둘 생겨나다보니 문화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의 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래된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깐 다른 문화단체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카이빙인 것 같아요.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끔은 문화원이 서가에 꽂혀 있는 책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분명 좋은 내용을 가진 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밖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은숙 이사가 바라는 것은 대덕문화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다.

“이제 문화를 누리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문화원인데 지원이 너무 부족해요. 대전에 예술이 전당이

있지만 대덕구민들에게는 대덕문화원이 더 가깝고 친숙하거든요. 대덕문화원이 지역의 문화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중심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을 쉽 없이 달려온 대덕문화원 새로운 전환점에 서다

김인숙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대덕문화원이 문을 연지 25년, 이후 20년을 대덕문화원과 함께 한 사람이 있다. 대덕문화원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인숙 사무국장이다.

현재 대덕문화원 사무국을 이끌며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인숙 사무국장은 2000년 4월 1일 문화원에 발을 디뎠다. 대덕문화원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대덕백일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원고지를 나눠주며 일을 시작했다. 문화원의 일은 사업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사회생활 경험 없었던 스물의 김인숙 사무국장은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면 얼굴부터 화끈거렸다. 양 볼에 수줍은 붉은 꽃이 피어나던 그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문화원은 사람 만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뛰어들었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대덕문화원에서 보낸 20년이 저를 많이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문화’라는 단어는 그저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대충하지 않았다. 무엇이든 눈으로 보고 배우고 몸으로 부딪치고 익히며 10년을 보냈다. 그렇게 구성원들과 푹푹 뭉쳐 밤낮 없이 사업에 매달렸다. 그리고 2011년, 대덕문화원은 전국의 문화원 가운데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성과는 여기

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대덕문화원은 또 한 번 한국문화원연합회 선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직원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호흡이 잘 맞아요. 열심히 공모사업 준비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면서 지역민 대상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만들었어요. 사실 지역민과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몸도 마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역민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훨씬 커요. 어떤 분들은 굳이 찾아서까지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성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지역민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 변화가 대덕문화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뜨겁던 타오르던 직원들의 열정이 한풀 꺾일 때도 있다. 대덕구의 많은 지역 축제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중 몇몇은 주요 프로그램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대덕문화원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민의 호응을 얻으며 몇 년 간 지속했던 문화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덕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인숙 사무국장은 대덕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외부가 아닌 내부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견고한 조직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가끔은 문화원이 힘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역에 여러 문화단체들이 들어서면서 문화원의 존재의미에 대한 명확성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지금처럼만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덕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더욱 특화시켜 나가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김인숙 사무국장은 개원 25주년을 맞은 올해가 대덕문화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문화원하면 생활문화를 배제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단순히 강좌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생활문화를 영유해가는 사람들,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으로까지 사업이 확장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기록사업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 등을 장르별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문화원이 체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 같아요. 생활문화와 기록사업.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대덕문화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란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변화시켰듯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덕문화원

홍순자 대덕문화원 부장



2008년 처음 대덕문화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잠시 문화원을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대덕문화원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일했다. 문화원은 평범한 직장인,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였던 홍순자 대덕문화원 부장에게 전혀 다른 세계였다.

“결혼 전에는 기업에서 총무로 근무했어요.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이자 주부로 살았죠. 그러다가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대덕문화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보통은 낯선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문화원의 일은 낯설지만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홍순자 부장은 대덕문화원의 살림꾼이다. 기업에서 총무를 맡았던 경력을 살려 문화원의 예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대덕문화원이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는 1인 2역 정도는 기본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1인 3, 4역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 회사생활과 비교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만의 특별한 성취감과 보람이 대덕문화원에 있다.

“무제, 대덕백일장, 그리고 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하는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탐방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시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럴 때면 마치 부모님께 효도한 것처럼 마음이 행복해져

요. 그리고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몇 년 뒤에 성인이 돼서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하는데요. 그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대덕문화원의 일 년은 각종 공모사업과 새로운 기획사업으로 일정표가 빼곡하다. 그 만큼 예산 운용도 만만치 않다. 그 모든 것을 투명하고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순자 부장이다.

“대덕문화원에는 좋은 기획자들이 있어요. 늘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는데요.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 예산이 많건 적건 쓰임에 맞게만 쓰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간에 마음이 정말 잘 맞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예산을 꾸려나갈 때도, 공모사업을 할 때도 전적으로 그 일을 맡고 있는 구성원의 뜻을 따라주고 응원합니다.” 대덕문화원과 함께 하면서 홍순자 부장은 많은 변화를 지켜봐왔다. 삭막했던 도심에 들어선 문화공간 하나가 이웃 간의 정을 되살렸고, 평생 농사일만 하던 마을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셨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홍순자 부장 역시 변화를 겪었다. 아니 가장 많은 변화를 몸소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제가 정말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만약 대덕문화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물음표를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처럼 매순간을 즐기면서 열정적으로 살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덕문화원이 변화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상을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문화원이 성장한다

장원 대덕문화원 대리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했다. 대전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다. 그러다 2017년 대덕문화원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아직 서른 초반,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거칠다 못해 무언가에 가로막혀 한참을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장원 대리는 대덕문화원이 좋다.

“국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기획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대전문화재단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사업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돼서 추진해보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욕심이고 도전이었던 그 마음을 충족시켜준 곳이 바로 대덕문화원입니다.”

장원 대리는 대덕백일장, 동춘당문화제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이미 자리를 잡은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덕문화원만의 특색 있는 기획, 색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장원 대리의 주 업무인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일이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기획자가 꿈꾸는 기획이 아닌 참여자가 원하는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 공연이나 전시, 강좌처럼 일방적으로 참여자에게 문화를 공급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참여자가 사업의 방향을 직접 설계하는 거죠. 사업의 결과물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참여자가

정하고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 주민이 팀을 이뤄서 지역 문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과정 속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미 있는도전이 되지 않을까요?”

대덕문화원에서 장원 대리의 역할은 막중하다. 앞서 오랜 세월 문화원을 이끌어온 김인숙 사무국장과 홍순자 부장이 손꼽는 대덕문화원 사무국의 핵심 인재다. 근무 4년차, 비교적 짧은 경력에도 장원 대리가 문화원 내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진심’ 덕분이다. 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넘어서 진심이 통했던 것이다.

“문화원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모든 사업이 다 재미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애정을 갖고 바라보면 매력 있고 재미있는 사업이 많아요.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고요. 너무 진지하지 않다는 점도 좋아요.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진지하게만 접근하면 전문 예술인이 아닌 지역민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대덕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자유롭고 무엇보다 소통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좋습니다.”

대덕문화원이 25년을 지역민을 위해 달려왔듯 장원 대리는 앞으로 25년을 대덕문화원과 함께 달릴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호흡과 박자를 맞춰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대덕문화원이 되길 바란다.

“대덕문화원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흐르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앞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업,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다보면 문화원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더 많은 지역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제4장

대전의 뿌리 대덕

대덕의 역사

대덕은 대전광역시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북과 동은 충청북도와 경계하고 있으며, 남은 동구·중구, 서는 서구·유성구와 경계하고 있다. 경부·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회덕분기점(JC)과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IC)가 있는 영·호남 교통의 분기점이다.

대전의 전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계족산과 대전시민의 젖줄인 대청호가 있는 청정 자연환경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대전 경제 중흥의 거점지다.

대덕은 옛 회덕현의 주요 부분에 있다. 회덕은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전의 뿌리다. 회덕(懷德)이란 지명은 논어 이인(里仁)편에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에서 유래하는데, ‘덕을 품은’이라는 뜻처럼 덕이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왔다. 또한 대덕구는 기름진 땅과 빼어난 풍광을 갖춘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고장이다. 예로부터 충절과 도덕을 숭상해 수많은 선비와 충신·열사·효녀·효부를 배출했고 회덕향교·동춘당·계족산성을 비롯한 무수한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한 한발 정신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 선사시대의 대덕

대덕의 역사는 선사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덕의 구석기 유적은 대청호 유역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금강과 용호천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한 용호동 유적이다. 한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용호동 유적은 구석기 중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4개의 구석기 문화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 3천여 점에 달하는 구석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 중 맨 아래에 있는 4문화층의 연대는 10만 년 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까지 대전에서 가장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으로 대덕의 역사가 곧 대전 역사의 뿌리임을 의미한다.

- 삼국시대의 대덕

삼국시대에 대덕 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양국 간의 치열한 전쟁이 불가피했으며 백제가 망한 직후에도 이 지역은 백제부흥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회덕이 백제시대 역사상에 등장한 시기는 백제가 서울을 웅진으로 옮긴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에 ‘비풍군(比豊郡)은 본래 백제(百濟)의 우술군(雨述郡)으로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의 회덕군(懷德郡)이다.’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회덕군이 백제시대에는 우술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우술군을 ‘일운오천’이라 하여 오천이라 부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덕 지역은 백제시대 우술군 혹은 오천이라는 행정구역명을 가진 지역이었다.

- 고려시대의 대덕

신라 통일기에 지금의 대덕은 웅주(공주)에 소속된 비풍군이었고 후삼국 초기에는 완산주(전주)에 근거를 둔 건훤의 후

백제에 속해 있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는 고려의 영역으로 다시 재편되었다.

대덕에 관련된 고려시대의 역사기록은 매우 한정적이다. 향소부곡의 침소, 몽고 침입기의 상황, 약간의 지리지 기사와 역과 봉수에 관한 기사가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 회덕군에는 주안향(동구 주산동)·침이소(대덕구 회덕동)·서봉 부곡(동구 용계동)·홍인 부곡(동구 신상동) 등이 있었는데, 지금의 대덕 지역에는 침이소(針伊所), 즉 철소(鐵所)가 있었다.

- 조선시대의 대덕

조선의 건국과 함께 태종대에 8도 체제로 지방행정 체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하게 된다. 충청도는 태종 13년 도역이 조정된 뒤에는 한 말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도명은 도를 구성하고 있는 있던 계수관(忠·淸·公·洪州)의 읍격 승강에 따라 충청(忠淸)·공청(公淸)·공홍(公洪)·충홍(忠洪)도 등으로 개칭이 빈번했다. 지금의 대덕구 지역인 회덕현은 공주·홍주목 등과 함께 충청우도에 속해 있었던 24개 현 가운데 하나로 종6품의 현감이 다스리는 관아였다.

- 조선시대의 대덕

조선의 건국과 함께 태종대에 8도 체제로 지방행정 체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하게 된다. 충청도는 태종 13년 도역이 조정된 뒤에는 한 말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도명은 도를 구성하고 있는 있던 계수관(忠·淸·公·洪州)의 읍격 승강에 따라 충청(忠淸)·공청(公淸)·공홍(公洪)·충홍(忠洪)도 등으로 개칭이 빈번했다. 지금의 대덕구 지역인 회덕현은 공주·홍주목 등과 함께 충청우도에 속해 있었던 24개 현 가운데 하나로 종6품의 현감이 다스리는 관아였다.

- 근현대시대의 대덕

1910년 일제는 회덕군청을 회덕읍에서 지금의 원동으로 강제로 이전시켰다. 1914년 3월에는 회덕군을 진잠군과 공주군 일부와 합쳐 대전군으로 바꾸어 회덕군은 역사상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26년에는 대전면의 구역 확장에 따라 외남면의 일부를 대전에 편입시켰고 1931년에는 읍제의 실시에 따라 대전면이 대전읍으로 되었다. 이후 1935년에는 대전읍을 대전부(大田府)로 승격시켜 15개 정(洞)을 관할하도록 했다. 나머지 지역은 대전부에서 분리해 대덕군을 신설하면서 이곳에 편입시켰다. 즉 대전부와 대덕군을 분리했는데, 대덕이란 명칭은 대전의 '대(大)'와 회덕의 '덕(德)'을 합하여 만든 것이다.

1962년 이후 계속된 대전시의 지역 확장은 대전시를 둘러싸고 있던 대덕군의 축소로 이어졌고 1980년대 대전지역의 확장은 주로 유성과 대덕연구단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기존 의 대덕군 전역(진잠면 남선리 제외)이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회덕의 옛 지역을 중심으로 대덕구가 신설되었다. 이후 동의 분동과 편입을 거쳐 12개 행정동, 26개의 법정동을 가진 지역이 되었다.

대덕의 문화유산

늘 그곳에 가고 싶다

대전의 보물 동춘당(同春堂) 보물 제209호



동춘당은 조선 중후기 학자인 동춘당 송준길(1606~1672) 선생께서 거처하던 별당 건물이다. 건축물로는 대전의 유일한 보물(제209호)이다. 선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의 어지러운 나라를 예로써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으로 우암 송시열 선생과 더불어 양송(兩宋)이라 일컬어졌던 분이다. 선생은 '만물과 더불어 봄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별당의 당호를 동춘당(同春堂)으로 사용했다. 현대인들도 역시 집에 문패를 달고 있다. 최근엔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문패마저 사라지고 몇 호라는 표시만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옛사람의 소박한 집에는 대부분 당호를 알리는 편액이 걸려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 편액을 통해 옛 선비의 삶과 만나게 된다. 그들이 추구했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닦으며 더불어 살아왔는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동춘당은 370년 정도 된 건물이다. 물론 기와라든지 서까래 같은 것은 개보수를 해왔지만 소박하고 정다운 자태만큼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을 온돌방과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을 대청마루의 절묘한 조화, 피줄을 맞추듯 하나하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이음새, 방안에 앉아 있을 선비를 배려한 창문의 머름, 기둥을 받치고 있는 보아지에 단정히 새겨져 있는 무늬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은 법이 없다. 게다가 정면과 측면의 문을 치마 밑 걸쇠에 들어 올리면 밖에 있던 소나무와 들꽃과 바람마저 성큼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안과 밖을 나누던 벽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동춘당에 가면 올곧은 선비의 삶과 자취를 만날 수 있다.

옛 선비의 삶을 엿보다

동춘당 종택(同春堂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동춘당 송준길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거처하던 곳으로 별당인 동춘당 뒤희에 있다. 전형적인 양반집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유교적인 전통을 고려한 건물배치가 돋보인다. 동춘당의 왼쪽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을 가진 一자 모양의 사랑채와 ㄷ자 모양의 안채가 있고, 고택 오른쪽 조금 높은 곳에 제사 공간으로 가묘(家廟)와 별묘(別廟)가 있다. 사랑채는 사대부집의 사랑채치고는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넓은 마당에 비해 건물 자체 공간은 소박하다. 가운데의 대청마루와 안채로 통하는 중문 칸, 함실아궁이를 제외하면 정면의 6칸 중의 3칸만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송준길 선생의

절제된 인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안채는 집안의 가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여자들의만의 공간이다. 자칫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가운데에 넓은 마당을 둬으로써 충분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에 대청마루가 있고 왼쪽에 2칸의 마루방, 1칸 반의 안방, 1칸씩 자녀방과 바느질 방인 침모방, 그리고 부엌이 연결돼 있다. 대청마루의 오른쪽에는 각 1칸씩 건넌방과 옷방, 부엌, 반찬을 두는 찬방, 그리고 행랑방이 붙어 있어 전체적으로 ㄷ자형을 이룬다.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후손이 현재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호연한 詩가 영산홍처럼 피어나다 소대헌·호연재 고택(小大軒·浩然齋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90호



소대헌·호연재 고택은 조선 중후기의 선비이자 예학의 대가인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둘째 손자 송병하 선생이 분가해 거주했던 가옥이다. 과거 문화재 지정 당시 살던 후손의 이름을 붙여 ‘송용억 가옥’이라 불렀는데, 2016년 8월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소대헌·호연재 고택으로 변경되었다.

이 집은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안채, 사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각대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큰 사랑채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작은 사랑채가 있다. 이 작은 사랑채의 왼쪽에 나 있는 중문을 들어서면 간결하게 꾸민 안채가 있으며 안채의 뒤편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송씨가묘(宋氏家廟) 사당이 있다. 이 가옥은 사랑채가 두 채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아마도 이 집 안에 남자들의 활동이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숙재 앞마당에는 300년이 넘었다는 오래된 영산홍이 있어서 해마다 봄을 물들이고 있다.

또한 이 집의 안채인 호연재는 동춘당 선생의 증손자인 소대헌 송요화 선생의 부인으로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호연재 김씨가 거처하던 곳이다. 호연재 김씨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자결해 절의를 지킨 선원 김상용 선생의 고손녀로 드높은 충절과 학문적 전통 속에서 자라난 여성이며 높은 정신적 자존과 긍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200여 편의 많은 시를 남겼으며 가옥 옆에 시비가 세워져 있다.



야음(夜吟)
달빛 잠기어 온 산이 고요한데 (月沈千 靜)
샘에 비친 별빛 맑은 밤 (泉映數星澄)
안개바람 땃잎에 스치고 (竹葉風煙拂)
비이슬 매화에 영긴다 (梅花雨露凝)
삶이란 석자의 시린 칼인데 (生涯三尺劍)
마음은 한 점 등불이어라 (心事一懸燈)
서러워라 한해는 또 저물거늘 (調帳年光暮)
흰머리에 나이만 더하는구나 (衰毛歲又增)

청풍과 명월의 맑은 기상을 담다 쌍청당(雙淸堂)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쌍청당은 조선 전기의 학자인 쌍청당 송유(1389~1446) 선생이 지은 별당이다. 건물 이름은 선생의 호인 ‘쌍청(雙淸)’을 따다 붙였는데, 박팽년이 쓴 당기(堂記) 중 ‘하늘과 땅 사이에는 바람과 달이 가장 맑다(淸風明月)’는 데서 따왔다. 청풍과 명월의 맑은 기상을 마음에 담고자 한 것이다. 편액은 중추부사 박연의 글씨다. 조선 세종 14년(1432)에 지은 뒤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했지만 원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건물은 약한 구름을 배경으로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서편에 위치한 본채의 대문으로 들어서 사랑채 앞을 지나면 본채의 동편에 조그만 일각대문이 있고, 그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작지붕의 쌍청당은 그리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지만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다. 건물 뒤에는 구름을 이용해 화계를 만들어 두었고 그 외에는 별도의 조경을 하지 않았다.

쌍청당은 다른 주택건축에서 볼 수 없는 단청이 되어 있어서 특이하다. 조선 초에는 단청이 유행해 일반 민가에서 너도나도 단청 칠을 했는데, 단청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해 쓰는 형편이

라 당시로서는 대단히 비싼 고급 장식재였다. 이러한 사치를 보다 못해 세종 11년 일체 단청을 금지했고, 「경국대전」에도 ‘사찰 이외에 단청(眞彩)을 사용하는 자는 곤장 80대의 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정해지기도 했다. 쌍청당은 이미 법령이 정해지기 전에 세웠던 건물이므로 이 규제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쌍청당은 당시의 건축미학을 잘 나타내는 건축물이다. 특히 근처에 많이 남아있는 이와 유사한 별당 건축물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기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곧은 절개와 기상을 간직한 고택
송애당(松崖堂)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



송애당은 조선 효종 때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김경여(1596~1653) 선생의 별당 건물이다. 선생의 자는 유선(由善), 본관은 경주이다. 회덕현 백달촌(지금의 대덕구 중리동)에 외가인 송남수의 집에서 김광유와 송씨부인 사이의 유복자로 출생했다. 1632년(인조 10년) 문과에 급제해 예조정랑을 거쳐 사헌부지평이 됐으며 병자호란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1640년(인조 18년) 송애당을 짓고 거처했다. ‘송애(松崖)’는 눈서리를 맞아도 변치 않는 소나무의 곧은 절개와 우뚝 선 언덕의 굳센 기상을 간직하겠다는 뜻으로 김경여 선생의 높은 기개와 충성심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송애당은 도시개발로 인해 제사를 지내는 정침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지고 별당인 송애당만 남아 있다. 주변에 인접해 있는 쌍청당, 동춘당과 마찬가지로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에 5량집 구조로 되어있다. 왼쪽 2칸은 대청마루이고 오른쪽 1칸은 온돌방으로 꾸몄다. 대청과 온돌방의 위치가 두 별당과 반대로 되어 있고 반침(상부반침 하부아궁이 함실)이 다른 별당에서는 반 칸이 밖으로 튀어나온데 반해 송애당은 반 칸이 들어가 붙어 있는 것이 다르다. 송애당 대문 앞 잔디밭에는 송춘길 선생의 글씨로 알려진 범천석충 애각(崖刻, 절벽에 새긴 문자)이 자리하고 있다.

아픔의 세월이 오롯이 담겨있는 공간
제월당·옥오재(霽月堂·玉吾齋)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

읍내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듯 기품을 잃지 않고 깨끗한 자세로 오랜 세월을 견뎌왔을 고택이 있다. 바로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 제월당과 옥오재이다. 예전에야 계곡산 줄기가 이어지는 수려한 풍광 안에 자리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경부고속도로와 신탄진으로 쭉 뻗은 도로 사이에 양어깨를 좁혀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규모와 대가의 위세가 많이 훼손되어 보이는 고택으로 6.25 전쟁 때에는 인민군 정치보위부로 사용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건물은 별당인 제월당과 사랑채인 옥오재, 안채와 사당, 장서각이 있어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장서각은 도둑이 들어 문중의 많은 유물들이 도난을 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제월당은 조선 숙종 때 대사헌, 대사간, 부제학 등을 지낸 송규립(1630~1709) 선생이 손님맞이와 독서 등을 위해 지은 별당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왼쪽 1칸은 온돌방이고 오른쪽 2칸은 대청마루를 들였다. 방 뒤쪽에는 1칸을 더 내어 위는 반침(누다락), 아래는 함실(아궁이)로 사용했다.





옥오재는 제월당 선생의 아들인 송상기(1657~1723)선생이 지은 사랑채 건물이다. ‘옥오(玉吾)’는 차라리 깨어지더라도 옥(玉)을 택하겠다는 소신이 담긴 뜻이다. 충성스러운 말과 도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송상기 선생의 기개를 엿볼 수 있다.



언덕 위에 홀로 남은 옛 배움터
취백정(翠白亭)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9호

취백정은 제월당 송규림 선생이 1701년(숙종 27년)에 세운 미호서원의 부속 건물로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던 공간이다. 현재 미호서원은 사라지고 우뚝한 언덕 위에 취백정만 홀로 서 있다. 예전에는 찾아가는 길도 마땅치 않았는데, 그나마 표지판과 길이 다듬어져서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는 취백정을 찾아볼 길이 열렸다. 송규림 선생은 조선 중후기 문신으로 문과에 급제해 충청도 관찰사와 예조참판을 지내고 예조판서, 대사헌 등에 임명됐으나 모두 그만두었는데, 80세에 이르러 지돈녕부사(知敦寧

府事, 정2품 벼슬)에 올랐다. 학문이 뛰어나 송준길, 송시열과 함께 삼송(三宋)으로 일컫는다. 작은 일각대문을 세우고 주위로는 담을 두르고 있는 취백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이 건물에는 영조임금이 친필로 써서 내린 '사호각(四皓閣)'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 뜻은 중국의 신선 넷이 살았다 해서 지어진 '상산사호'(商山四皓) 고사에서 따왔다고 하나 사호각 현판은 광복 후 없어졌다.

옥 같은 물방울이 흩날리는 곳

옥류각(玉溜閣)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



옥류각은 송준길 선생이 강학하던 곳을 기념해 송규림 선생 등 송준길 선생의 제자와 문인들이 1693년(숙종 19년)에 세운 누각이다. 송준길 선생이 읊은 시 가운데 ‘층층 바위에 날리는 옥 같은 물방울(層巖飛玉溜)’이란 시구를 따서 건물 이름으로 삼았다. 지금은 계곡산 계곡을 흘러가는 물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옥류를 느끼기 어렵지만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린 후엔 바위에 흩날리는 옥 같은 물방울을 만나볼 수도 있다. 옥류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작지붕을 올렸고 누각 아래로 계곡물을 흐르게 하였는데, 계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

으면서 자연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울퉁불퉁한 모양새다. 옥류각에 가면 주춧돌을 한번 찾아볼 일이다. 옥류각의 편액은 정면과 측면에 걸려 있으며 곡운 김수증 선생의 글씨이다. 옥류각으로 오르는 길 옆 큰 바위에는 송준길 선생이 썼다는 ‘초연물외(超然物外)’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물질적인 것에 초연하고자 했던 선비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마음을 읽는다

고흥류씨 정려각·정려비(高興柳氏 旌閭閣·旌閭碑)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5호



낮은 야산에 남향으로 세워진 이 건물은 고려 말·조선 초의 무신 류준의 딸인 류씨부인(1371~1452)의 정려각과 정려비이다. 류씨부인은 송극기에게 시집갔으나 22세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친정 부모는 딸을 재가시키려고 했지만 류씨부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개경에서 시집이 있는 회덕까지 4살 난 아이(쌍청당 송유)를 업은 채 수 백리를 걸어왔다. 이후 류씨부인은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아들을 훌륭히 키워 1653년(효종 4년)에 열녀로서 정려(旌閭)되었다. 정려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표창장이다. 조선왕조

는 삼강과 오륜을 바탕으로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해 효·충·열의 행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을 입구에 정려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했던 것이다. 고흥류씨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사방에 홍살을 둘러고 내부에는 정려편액이 걸려 있으며, 정려각 오른쪽에 1665년(현종 4년)에 세워진 정려비가 세워져 있다. 송준길 선생이 글을 짓고 송시열 선생이 글씨를 썼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송시열 선생의 글씨 중 하나이다.

어진 다스림을 기억하다

어사홍원모 영세불망비(御史洪遠謀永世不忘碑)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7호



회덕동 주민센터에서 뒷길로 돌아가면 좁다란 골목길에 어 깨조차 펴지 못하고 웅크려 있는 비각이 있다. 어사홍원모 영 세불망비각이다. 암행어사 홍원모는 순조 때 회덕 지방의 민 정을 살필 당시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던 서민들의 세금을 감 면해주고 앞장서 구휼 정책을 강구하여 서민들을 구제해주 었다. 그가 떠난 후 고을에서는 어사 홍원모의 어진 다스림 을 잊지 않기 위해 1831년(순조 31년) 4월에 강덕환이 비를 세우고 이후 연재호가 보호비각을 세웠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작은 규모이지만 품격을 갖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정면과 측면이 각각 한 칸씩이지만 정 면은 11자(3.4cm), 측면은 10자(3.0cm)로 긴 장방형 평면인데, 특이한 것은 전, 후면에는 2개, 측면에는 1개의 샅기둥을 세 워 마치 정면 3칸, 측면 2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비각은 작은 규모이지만 건축 부재가 견실하고 조각과 단청이 화려하다. 특히 넓은 기둥 간격을 보완하기 위해 세운 샅기둥 위에도 포 를 짜 올린 것이 특징인데, 이 때문에 더욱 화려한 모습이다.

조선시대 유학의 중심지

회덕향교 대성전(懷德鄉校 大成殿)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의 관립학교(官立學校)로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회덕향교는 읍내동 옛 관아 터로부터 북쪽으로 1리 남짓한 산기슭에 있으며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향교처럼 조선 초기에 건립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회덕향교는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려 1600년(선조 33년)에 다시 짓고 1812년(순조 12년)에 다시 크게 수리한 것으로 본다. 원래 향교는 성현에 대한 제사와 후학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풍교화(民風教化)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향교에는 성현들의 훌륭한 덕을 기리기 위 한 제사공간과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강학공간이 있었다. 강 학공간은 명륜당이고 제사공간이 대성전과 동·서무이다. 회덕향교는 낮은 야산의 경사진 땅을 따라 2단으로 축대를

쌓고 입구 쪽으로 홍살문을 세웠다. 그 뒤에 소슬삼문형 외 삼문(外三門)이 있는데, 외삼문의 좌우에 방을 만들어 수직 사(守直舍, 관리인이 거처하는 공간)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 고 이 외삼문을 들어서면 명륜당이 있고 여기에 다시 10단의 계단 위에 자리한 내삼문(內三門)과 대성전이 남향으로 배 치돼 있다. 대성전 내에는 중국의 5성 4현과 우리나라 18현 등 27현의 위패를 배향해 봄과 가을에 석전제를 올리고 있다.

- ◇ 5성 :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 ◇ 송조 4현 :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 ◇ 한국 18현 :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헌, 김집, 송준길, 송시열, 박세채



바위에 깃든 부처의 뜻
용화사 석불입상(龍華寺 石佛立像)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6호



계족산 봉황정 중턱에 용화사가 있는데, 대웅전 옆에 깊은 명상에 잠긴 듯 지긋한 모습의 석불이 있다. 용화사 주변 땅속에서 묻혀있던 것을 발굴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석불의 모습은 세 등분으로 나뉘었다 다시 시멘트로 거칠게 붙여진 모습이 역력하다. 석불의 연대는 10세기 초 후백제로 추정한다.

이 석불은 부조식으로 묘사했으며 전체 높이가 250cm로 불상은 사람의 키와 비슷하고 단정한 형태여서 정감이 있다. 얼굴은 상대적으로 입이 작아서인지 고뇌에 찬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불의(佛衣)는 양어깨를 모두 덮는 형식인 통견의(通肩衣)를 입고 있다. 특히 가슴에서 U자형을 이루면서 양어깨에 걸쳐져 있는데, 가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늘어져 주름진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불상 전체에서 빛이 나는 형태의 거신(擧身) 광배는 끝이 뾰족하게 연꽃잎 모양으로 처리했다. 두광은 여러 가지 줄기와 덩굴이 만들어내는 당초(唐草)무늬로 아름답게 표현했다.

마을의 지킴이
법동석장승(法洞石長牲) 대전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

거친 자연석에 눈·코·입 등을 다듬어 표현한 남·여 한 쌍의 돌장승이다. 높이는 각각 153cm(여장승), 126cm(남장승)이다. 예전에는 법천골 마을 한복판을 흐르는 냇가를 중심으로 오른 쪽에 천하대장군, 왼쪽에 지하여장군을 두었다. 이 일대를 재 개발하면서 현재는 법동 입구 도로 양쪽으로 옮겨 놓았다.

남장승의 몸체에는 ‘천하대장군’, 여장승의 몸체에는 ‘지하여장군’이라 새겨 놓았고 둘 다 머리 위에 모자 모양의 돌을 새겼다. 각진 얼굴 형태를 가진 남장승은 강인함이 엿보이고 굳게 다문 입은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하다. 작은 입과 턱 선을 둥글게 처리해 순한 인상을 주는 여장승은 남장승과는 달리 귀를 만들어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남장승과 여장승 옆에는 각각 선돌이 서 있다. 남장승 옆의 것은 길쭉해 남성을 상징하고 여장승 옆의 것은 평평집해 여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요즘도 음력 정월 열 나흘날이면 산신제를 지낸 후 장승제를 지낸다. 마을의 액운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마을의 지킴이이자 이정표인 석장승은 오랜 세월을 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



수줍은 미소가 아름다운 읍내동 뒷골장승과 당아래장승 향토유적



회덕현 관아 터 부근에는 장승이 여러 군데 보고됐지만 현재는 뒷골장승과 당아래장승 두 군데만 남아있다.

뒷골장승은 뒷골마을 입구의 오른쪽에서 지하대장군(여장승), 길 건너편 논가에 천하대장군(남장승) 둘장승 2기가 서로 마주 보며 세워져 있던 것을 모아서 이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장승배기’라 부르는데, 원래 장승 옆에 둥구나무가 있었다고 전한다.

천하대장군은 높이 145cm 정도의 사각형 돌기둥에 머리는 뾰족하게 처리해 고깔 같은 모자를 쓴 모습이다. 눈과 코, 귀는 양각으로 표현했고 입은 웃는 모습으로 음각했다. 그런데 귀로 보이는 표현물을 눈 바로 옆에 양각해 놓아 괴이한 느

낌을 준다. 그리고 몸체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라고 음각했다.

지하대장군은 높이 72cm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인데, 명문(銘文)은 짧은 몸체에 표현하느라고 분산돼 쓰여 있다. 이는 주어진 재료를 자연적으로 이용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눈썹과 눈, 코는 양각으로 표현하고 입 부분 역시 음각으로 웃는 모습을 지니게 했다. 이들 남녀장승 모두 무서운 표정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수줍은 듯이 웃는 표정을 하고 있다.



당아래장승은 예전에는 갑천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당산 주유소 길 건너편에서 원촌교 방향으로 약 30m 부근에 있다. 장승을 세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옛날부터 마을에 질병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전해진다. 장승은 자연석 그대로의 선돌인데, 중간 부분이 구부러지고 머리 부분이 뭉뚱하게 생긴 것이 얼굴 또는 남성의 성기를 닮은 특이한 모양이다.

계족산이 올면 반드시 비가 온다 계족산과 계족산 무제(舞祭)



계족산의 명칭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많지만 계족산은 우리 고유의 지명이다. 계족산의 최초 문헌 기록은 「고려사」로 ‘회덕군에 계족산이 있다’라는 기록이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계족산은 현의 사람들이 진산으로 삼는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청주에 이르기 14리, 서쪽으로 공주에 이르기 7리, 남쪽으로 진산에 이르기 22리, 북쪽으로 문의에 이르기 24리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계족산 정상에서 올리는 기우제인 무제는 예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헌에 등장한 것은 「세종실록지리지」가 처음이다. 「세종실록지리지」중 충청도 공주목 회덕현 조에 ‘마을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늘이 가물 때 이 산이 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기록이다. 이에 날이 가물면 계족산 정수리에 불을 놓아 산을 올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무제를 지냈다.

계족산 무제는 날이 가물면 마을 단위로 부녀자들이 진행했다. 그러나 하지가 지나고 초복이 다가와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남자들이 주축이 되어 고을 전체의 행사로 치렀다고 전한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많은 기우제의 형식이 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필수이므로 날이 가물면 신에게 호소도 하고, 때로는 신을 위협하기도 했다. 계족산 무제의 경우 신에게 호소하는 모방주술과 위협주술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형식은 술뚜껑 훑쳐내기, 샘긋, 암장 찾기, 비부르기 등이며 무제에 쓰이는 도구는 샷갓, 도롱이, 장작, 생솔가지, 풍물 등이다.

계족산 무제는 우리 지역만의 특징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우제로 소중한 민속 문화다. 일제 강점기에 중단됐다가 1995년 복원된 이후 매년 무제를 지내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18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동상을 수상했다.

대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성 계족산성(鷄足山城) 사적 제355호



계족산성은 계족산 정상부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발달한 능선을 따라 약 1.3km 지점에 있는 봉우리(해발 431m) 위에 축조돼 있다. 산성에 올라서면 동쪽으로는 대청호 건너편으로 충북 옥천군이, 북동쪽으로는 충북 보은군 지역이 보인다. 성의 둘레는 약 1,037m로 대전지역에 소재한 산성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성내의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성의 축조 방식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 매우 견고하게 축조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자연석을 이용한 내탁기법(內托技法)에 의한 방식으로 서벽, 동벽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축조 방식은 협축기법(夾築技法)인데, 동벽과 북벽, 서벽과 남벽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계족산성은 회덕이 우술군에 소속된 이래로 백제의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성은 백제가 망한 직후에도 백제부흥군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의하면 당시 백제부흥군의 요충지인 웅산성과 우술성을 함락시키는 기록이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웅산성과 우술성은 같은 시기에 함락됐고 수천 명이 희생됐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투상황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웅산성을 포위한 김유신 장군은 성을 함락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항복하여 목숨을 보전하고 부귀를 기약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백제부흥군은 ‘싸우다 죽을지언정 신라군에게는 항복하지 않겠다.’며 임전의지를 다졌다. 그 결과 수천 명이 사살당한 백제 민초들의 넋이 계족산성에 깃들여 있다.

대덕의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란 과거에 흔히 ‘인간문화재’라고 불렸던 것으로 연극, 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중에서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외의 경우 1989년 ‘웃다리농악’(보유단체: 대전웃다리농악 보존회)이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총 24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대덕구에는 장동 산디마을 탐제, 송순주, 국화주, 들말두레소리, 가곡, 목기장 6개 종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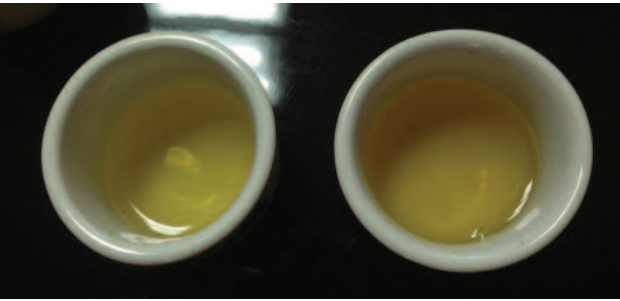
장동 산디마을 탐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5호,
보유단체: 장동 산디마을 탐제 보존회

정월 열나흘 밤, 제를 지낼 시간이 되면 마을 집집마다 간단한 상을 차리고 풍물꾼들은 제주 집으로 모인다. 먼저 마당 밟기를 한 다음 우물에 가서 샘굿을 치고 이어 농기를 앞세워 숲 거리로 향한다. 장동 산디마을로 들어오는 숲 거리 오른쪽에는 탐 할아버지가 있고 맞은편 내를 건너 아래쪽에는 탐 할머니가 있다. 두 탐에서 차례로 고사를 지낸 후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문인 소지를 올리며 달집태우기를 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장동 산디마을 탐제의 목적은 마을 주민들의 무병장수와 무사태평, 자손들의 건강,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데 있다. 할아버지 탐에 제사를 지내고 할머니 탐에는 가로놓인 개울에 설치된 오쟁이를 밟고 건넌다. 오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신이 서로 왕래하는 음양의 조화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송순주(松筍酒)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윤자덕



25세에 은진송씨가로 시집온 윤자덕은 시어머니로부터 종가의 제례 등 대소사에 필요한 각종 음식 만드는 법을 전수받았다. 그 중 하나가 송순주다. 또한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주식시의(酒食是儀)」와「우음제방(禹飲諸方)」이란 필사본의 요리서에 송순주를 비롯한 각종 가양주 제조법이 실려 있다. 송순주는 소나무 새순으로 빚는 술이다. 밀술용으로 누룩가루 1되, 뽕쌀 3되를 사용한다. 본 술은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식힌 후 밀술로 버무린다. 송화가 피지 않은 송순을 끓는 물에 데쳐 물기를 뺀 다음 항아리 밑에 깔고 본 술을 넣는다. 20~25℃의 방에서 15일간 숙성하면 비로소 송순주가 완성된다.

국화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2호, 보유자: 김정순

국화주는 은진송씨 집성촌인 송촌동 소재의 동춘당 문정공과 문중과 종가에서 누대에 걸쳐 빚어 온 비주(秘酒)이다. 동춘당 국화주는 10월 국화(황국)가 만개할 시기에 밀술이 만 들어지고 2차로 본 술을 담금 한 다음 약 보름간 발효와 숙성을 해서 만드는 매우 정성이 깃든 전통 민속주다. 원료는 통밀, 뽕쌀, 찹쌀, 국화(황국)이며 누룩의 주원료는 밀이다. 색깔은 황갈색을 띠며 은은한 국화향이 특징이다. 국화주는 조선시대 은진송씨 문중에서 사대부들을 위한 손님 접대용, 명절과 기일에 제주로 애용하던 명주다. 나라에서 시호를 받은 은진송씨 문중에 하사했던 궁중의 술로 그 본래의 양조비법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와 동춘 송준길 선생의 13세손 송춘기의 처 김정순씨가 국화주 제조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들말두레소리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보유자: 고석근 · 단체 들말두레소리 보존회



들말두레소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일원에서 전해 내려온 논농사와 관련한 일노래이다. 목상동 일원은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넓은 들판으로 들말이라 불렸으며 땅이 기름져 농사일이 성했다. 들말에서는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가 되면 마을단위로 공동작업을 위한 두레를 조직했는데, 한 집에 한 사람씩 이 두레에 참가했다. 들말에 80호 정도가 살았고 따라서 80명 규모의 큰 노동조직인 두레가 형성되었다. 두레가 조직돼 논일을 하러 나가면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모든 두레꾼이 우렁차게 뒷소리를 받으며 작업을 했다.

부록

역대 대덕문화원장



류해상

1~2대, 4대 원장

1995. 2. 17 ~ 2003. 2. 16.

2005. 2. 22 ~ 2007. 2. 26.



신현배

3대 원장

2003. 2. 17 ~ 2005. 2. 21.



송성현

5~7대 원장

2007. 2. 27 ~ 2017. 3. 14.



이종철

8~9대 원장

2017. 3. 15 ~

대덕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이종철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부원장 이모일

대한전통예술보존회 대전지부
부위원장



부원장 임기환

구백공구 대표



부원장 임찬수

前 대덕구 부구청장



이사 권용기

기성화학 대표



이사 백순남

서예가



이사 강창선

대전 “옛생들” 향토사학자



이사 최옥희

대덕향토문화연구회 회원



이사 박은숙

지속가능연구소우리해
사회적협동조합 소장



이사 송금옥

서예가

대덕문화원 임원 명단



이사 임덕순
대덕전통놀이연구회장



이사 이승식
前 소방서장
(대천, 공주, 대전동부)



이사 김선우
건축사사무소 정수건축 대표



이사 조명구
삼보주식회사 대표



이사 장세철
(주)태영자동차공업사 대표



이사 이병돈
(주)삼창 대표



이사 노수승
금강테크 대표



이사 김태수
회덕동 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사 김경환
바르게살기운동
대전 대덕구협의회 감사



이사 강성서
가자주류 대표



이사 이두하
웅진한약국 운영



이사 정우영
백제수산 운영



이사 김영태
(주)씨엔에스종합건설 대표이사
(주)청술건설산업 회장



이사 신인수
한우백화점 대표



이사 박흥용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시 대덕구협의회장



이사 민권기
신탄진농협조합장



이사 이상복
신탄진번영회장



당연직 이사 전해동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 김은정
대전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감사 신상래
前 대전광역시 법무담당관

문화원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로써 1950년대 미국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활동 및 상록수활동을 위한 사설기관으로 밀양과 대전 등 몇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설립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문화관, 공보관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1962년, 전국의 문화원을 회원단체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결성하면서 각각의 사설 기관이었던 문화원이 정부공인기관으로 인정되었다. 1965년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다시 각 문화원이 특수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정부의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제공받게 되었다.

1960년에 전국 78개였던 문화원은 1971년 - 132개, 1989년 - 159개, 1996년 - 181개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30개에 이르고 있다. 문화원은 홍보, 문예진흥, 지역향토문화보존전승, 전통문화선양, 지역문화행사개최, 도서관사업, 사회교육, 문화복지증진, 국제문화교류 등 다양하며 폭 넓은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향토문화를 발굴, 정리하고 향토사를 펴내는 활동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축제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적 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선도 및 평생교육진흥과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생활문화권 조성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약칭: 지방문화원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17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09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20. 6. 9.〉

1. 삭제 〈2020. 6. 9.〉

2. 삭제 〈2020. 6. 9.〉

3. 삭제 〈2020. 6. 9.〉

4. 삭제 〈2020. 6. 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6. 9.]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18., 2020. 6. 9.>
-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9조 삭제 <1999. 1. 21.>

제10조 삭제 <1999. 1. 21.>

제11조(정치관계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물관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삭제 〈1999. 1. 21.〉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 삭제 〈2002. 12. 18.〉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③ 삭제 〈2011. 7. 21.〉

④ 삭제 〈2011. 7. 21.〉

⑤ 삭제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제17417호, 2020. 6. 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0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설립인가 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 삭제 〈2020. 9. 8.〉[시행일 : 2021. 1. 1.] 제2조

제3조 삭제 〈1999. 3. 3.〉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관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시설 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 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 삭제 <2020. 9. 8.>[시행일 : 2021. 1. 1.] 제5조

제6조 삭제 <1999. 3. 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 삭제 <2020. 9. 8.>[시행일 : 2021. 1. 1.] 제7조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2. 28.]

[시행일 : 2021. 1. 1.] 제9조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9. 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11조 삭제 <2009. 12. 22.>

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덕문화원 정관

[시행 2014.12.15. / 제8차 개정 2014.12.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대덕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①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대덕구 내에 직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5인 이내
3. 이사 30인(원장, 부원장, 당연직 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 담당 국(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4년, 감사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찬동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

②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제16조(정치관계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①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①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

로 간주한다.

③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은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 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특례) ①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④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

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결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0조(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단, 본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원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2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3조(구성 등) ①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7조(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20./5차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 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 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2.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이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14.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진 문화원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시·도별 지방문화원 현황 (전국 230개)

연번	시 · 도	문 화 원
1	서울(25)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부산(15)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동래, 남구, 낙동,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기장
3	대구(8)	중구, 동구팔공, 서구, 남구, 북구, 수성, 달서구, 달성
4	인천(10)	중구, 화도진, 미추홀학산,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5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
6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7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
8	세종(1)	세종
9	경기(31)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의왕,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0	강원(18)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1	충북(11)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2	충남(15)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 보령, 온양,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3	전북(1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4	전남(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15	경북(23))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16	경남(20)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7	제주(2)	제주, 서귀포

대덕문화원 25년사

여기, 문화꽃이 피다

발행일 : 2020년 11월 30일(월) | 발행인 : 이종철 | 기획 : 김인숙 | 구성 · 집필 : 백옥희

편집위원회 : 임찬수, 강창선, 박은숙 | 디자인 · 인쇄 : 태광기획인쇄(T.042-486-0721)

발행처 : 대덕구, 대덕문화원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48(읍내동)

전 화 : 042-627-7517